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인천산업유통센터지점 거래고객
(주)우드뱅크 이태호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부천지점 거래고객
(주)이연에프앤씨 정보연 대표

IBK가
바꾼 삶.

나는 요즘, 고민 없이 사는 중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월 적립 한도 없이

IBK포인트 3.8로
고민 없이
1.5% 적립 받는 삶,

내 일상이 되다



IBK포인트 3.8



이 모든 혜택은 카드앱에서



어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d-04678호(2025.04.14.~2026.04.1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388호(2025.04.02.) [유효기간:2026.03.30.]

· 연회비: 국내신용카드(BK) 3만 7천원, 해외결제용(VISA, Master) 3만 8천원. 연회비 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지 제공. 신용실적 및 통합 월 월안련도 등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납부: 해외결제용 신용카드: 카드사(발행) 최고금리 20% 이내) * 연. 연회비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시납부: 카드사(발행)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유이자 할부 기간 연회비 시: 가계발생시점의 동일일 현재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적용금리는 상환상 상시발생이율과 상환금리가카드사(발행) 중 높은 금리율을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 대출기준) - 신용등급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한도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한도금을 연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작정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등급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개인을 제3자에게 전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송신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contents 2025년 6월호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여성시대의 영원한 벗
전유성·김승현 진행자와 함께

10 신춘편지쇼 현장 스케치

장려상

16 새로운 함께

22 우리 이제 가족이야

32 오늘도 함께

39 널 살린 나, 날 살린 너

46 3승을 소망합니다

50 싱글맘 러브스토리

56 모모의 새날

62 아이들과 함께한 산티아고 순례길

71 오늘보다 더 좋을 순 없다

83 딸과 함께라면 꼴찌도 아름다워

88 엄마와 함께

93 시상식 그 진한 감동의 현장

98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10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우드뱅크 이태호 대표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이연에프앤씨 정보연 대표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시간 욕심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노래 DNA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6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의 영웅난 바트

전유성·김승현 진행자와 함께

글 | 박금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멀리서 “라라랄라~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여성시대” 하는 여성시대 시그널 음악이 들리면 매일매일 우리와 마음을 나눈 술한 편지 사연들과 함께 역대 진행자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김승현 씨와 전유성 씨를 4월 15일 화요일 방송에 모셨습니다.

여성시대가 방송 50년을 채우는 동안 김승현 씨는 1992년 가을부터 10년 넘게 손숙 씨 양희은 씨와 함께 여성시대를 진행했고, 전유성 씨는 2002년 가을부터 1년 동안 양희은 씨와 함께 여성시대를 진행했습니다.

◆ **김승현** : 처음 MBC-TV ‘유쾌한 스튜디오’로 방송을 시작하고 이어서 ‘여성시대’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깊은 갈등을 겪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삶의 진실이 담긴 소중한 편지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읽을 수 있을까. 슬프



고 가슴 아픈 일에는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 그리고 나는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밋지 않은 시동생이 되자. 내가 투정을 부려도 청취자들께서 받아 주시겠지. 실수해도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수도 있어. 그래 시동생과 형수님 관계가 좋겠다. 여성시대 청취자인 전국의 형수님들께 기대자!’

그리하여 저는 한꺼번에 전국 방방곡곡의 형수님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손숙 누님과 양희은 누님이 많이 도와주고,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신 편지는 한 통 한 통이 다 책 한 권 같아서 제 마음의 키를 키워주셨어요.

전유성 씨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유 있게 진행했는데 자유인으로 유명해서 아침 9시에 시간 맞춰 여성시대 스튜디오에 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하는 청취자들도 많았습니다.

◆ **전유성** : 라디오 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길 막히면 지각할까 봐요. 늦을 것 같아 피자집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도 하고 긴박한 순간이 많았죠. 같이 방송을 시작한 임성훈 씨나 허참 씨는 매일 방송을 진행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은 저의 자유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눌하고 말도 느려서 불안해들 하셨는데 그래도 청취자들과 양희은 씨 최유라 씨가 잘 돌봐주어서 3년 잘하고 저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지요. 택시를 타면 여성시대 잘 듣고 있다고 택시비도 받지 않으려고 하셔서 얼마나 실랑이를 했나 몰라요. 저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양희은 씨와 나란히 앉지 않고 기억자로 앉아서 양희은 씨 쳐다보면서 진행했죠. 제가 엉성하게 헛소리라도 하면 양희은 씨가 손을 잡아서 꼭 눌러주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여성시대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방송 시간에 청취자들을 초대하는 자리도 많았고 지방에서 공개방송도 하고 주부 나들이, 세계 속의 한국 여성을 만나러 브라질, 호주, 독일, 베트남, 미국, 캐나다로 출장도 가고 특히 미고사 결혼식에는 김승현 씨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김승현** : 당시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편지가 종종 왔습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이 없느냐?”고 물어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고 했다, 이사 가느라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런 사연을 받고 가슴이 아파서 ‘이분들에게 결혼식 사진을 만들어 드리자’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항공사에서 전세기 띄워 주고 웨딩드레스, 웨딩사진, 제주도 일주 신혼여행 하는 관광버스, 헤어와 메이크업, 호텔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탐동 야외공연장에서 100쌍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제주MBC 차인태 사장이 주례를 섰죠. 주름진 얼굴의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하는데 웨딩사진을 찍으니 입으로는 웃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입장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가수들과 피로연도 했죠.



6월의 신부를 그렇게 3년에 걸쳐 100분씩 탄생시켰습니다.

가을 나들이는 또 얼마나 좋았다고요. 800명씩 같이 버스 타고 가서 1박 2일 동안 지내며 운동회도 하고 밤도 좁고 가수들 공연, 밤에는 촛불 켜 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밤에 집에 전화 하느라 공중전화 부스에 길게 줄 서 있던 풍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놀때(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림습니다) 콘서트’를 기획하고, 행사 진행하고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김승현의 가요본색’을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유성** : 여성시대 가족들한테는 제가 꿈쩍 못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소줏집에서 아는 사람들과 오붓하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분이 소주병과 잔을 들고 오셔서 “내 술 한잔 받으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얼른 마시고 그분께도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그분은 얼른 원샷하고 다시 나에게 잔을 권합니다. 사양했더니 “전유성 씨 술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한 잔 더 받아요!” 할 수 없이 다시 한잔 받아 마시고 한 잔을 더 따라드렸습니다.

그분이 얼른 마시고 다시 잔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다시 거절하니, “나,

여성시대 매일 들고 있는 사람이오!”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꼬랑지가 바로 내려가서 “아, 예, 예, 예~” 하고 다시 잔을 받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성시대에 완전히 포위당한 채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지리산에 살면서 문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 그곳에 공연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미운 시동생처럼 때로는 속 깊은 막넛동생처럼 우리 곁을 지켜준 김승현 씨.

한없이 인자한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웃게 해준 오빠, 전유성 씨. 청취자들과 함께 여성시대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과 나눈 추억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찾습니다’ 방에서 시간을 거슬러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함께

새로운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여성시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만큼
수상 내역도 상금도 다른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이번 신춘편지쇼의 글제는 **‘함께’와 ‘새로운’**이었습니다.

위로와 사랑, 용기와 도전, 그리고 꿈과 희망을 담은 응모작이
3월 한 달 동안 3천 5백여 편이나 도착했습니다.

예심을 거쳐 나태주 시인, 최재천 교수, 박정민 배우, 여성시대를 진행
했던 서경석 님과 여성시대 진행자 양희은 님이 본심을 맡아주셨습니다.

대상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 상금 5백만 원, 우수상 상금 3백만 원,
가작 세 분 각 2백만 원, 입선 다섯 분 각 1백만 원, 장려상 열 분께는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졌습니다.

시상식은 4월 25일 엠비시 골든마우스홀에서 거행됐습니다.

골든마우스홀은 MBC 라디오에서 청취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진행
자들에게 수여하는 골든마우스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개홀입니다.

의미 있는 공간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 영광의 수상자들과
함께한 순간을 여성시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상자들과는 축하를, 신춘편지쇼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성시대 가족들과는 감사를 전합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새로운 함께

안철규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전 울산에 살고 있고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예쁜 아내와 세상 탄수화물의 지배자인 큰아이와 고기의 지배자인 작은 아이를 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들들이 먹는 모습에 흐뭇하지만 가끔은 무섭습니다. 저와 아내는 학원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고 10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차이입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의 예쁜 아내는 어릴 적 다리 관절에 뼈를 갇아 먹는 골육종이라는 제가 듣기에 조금 생소한 암에 걸렸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니 서울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본인도 무서웠지만 가족들도 모두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어린 나이에 수많은 항암 치료를 받

고 조금만 감염이 되면 다시 서울로 가서 항균실에서 혼자서 세상과 차단되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견뎌냈습니다.

장모님은 하시던 일을 다 포기하고 간호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장모님의 사랑을 원하는 다른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위기를 다 극복하고 같은 병원에 있는 골육종을 가진 다른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달리할 때 아내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 하기도 싫은 삶을 겪어온 예쁜 아내가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녀가 20대 후반이 되던 해에 저와 1년의 데이트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쉽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결혼 후에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아내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도 아내를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돈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병을 잊지는 않았지만 잊은 듯 살고 있는 그녀와 함께 그동안 병원에서 청춘을 보낸 삶의 보상을 받고자 아이들과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고 추억도 많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탄수화물을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는 큰아이가 어느 날 다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 다리가 아픈 거지? 대체 왜 그런 거지?’

걱정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일사천리로 문제를 수정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저에게 그냥 머릿속에 ‘어떡하



지'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다리가 무슨 이유로 아픈지도 모르면서 혹시나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눈뜬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그 생각으로 미친 듯이 슬퍼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날, 초조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이 넘쳐흐르는 걱정과 불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저희 아이의 다리를 살폈고 아내는 의사한테 자신의 병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 순간의 불안과 걱정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설마, 그래 아니겠지. 얼마나 잘 먹는데 정말 암이면 어떡하지.’

혼자 속으로 긍정과 부정의 생각을 되뇌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골육종이 아니었습니다. 휴~ 아내는 너

무 긴장을 많이 했는지 평평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다독여 주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런 고비의 나날들이 몇 번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아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은가 봅니다. 아주 잔인한 정도로요. 어느 날 아내의 가슴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지더라고요. 아내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별거 아닌, 그냥 여성에게서 주로 생기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성 전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도 이것은 수술만 하면 된다고 했고 혹도 이쁘다고 해서 별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검사는 한 번 해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응했습니다.

원래 검사 결과가 1주일이 지나면 나오는데 갑자기 조직검사 보내고 4일째 되던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별생각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의 목소리는 내일 병원으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는 ‘뭐지? 벌써 결과가 나왔나’ 하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갔고 의사는 저희를 마주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유방암’ 그 잔인한 단어가 의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멍하니 멍하니~ 아무 소리도 내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또 울고 힘없이 울고 미친 듯이 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보았습니다.

원래 그날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깜짝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의 주제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조금 주저하다가 혹

시나 많이 속상해하실까 봐 아내는 별일 아닌 듯이 어른들께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도 겪었는데 이쯤은 문제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암’이라고 하니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ですよ. 딸이 암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병과 싸운다고 힘들게 보냈는데 또 이런 시련이 오니까 장모님은 너무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내가 어릴 적에는 장모님의 도움으로 그 힘든 일을 헤쳐 나갔고 이제는 제가 그 자리를 함께하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있을 차례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을 텐데 내가 대신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항암으로 인해 아내 머리가 다 빠지니 아내는 두건을 쓰고 생활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 때도 두건을 하기에 그냥 그런가보다 넘겼습니다. 그게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곁에 와서 두건을 쓰고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름이었거든요. 아내는 밤에 제가 잘 때 두건을 벗어서 머리를 잠깐 식히고 다시 제가 출근하면 밤에 자지 못한 잠을 두건을 쓰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아! 그 순간,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같이 병을 이겨 내고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 아내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고통을 함께한다면 그 사람의 힘든 순간만 함께하지 순간순간

살피고 힘든 게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힘든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살피야 했습니다. 어리석음은 그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깨우침기가 힘든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두건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벗었습니다. 혹시 제가 싫어할까 봐 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그녀의 예쁜 머리에 뽀뽀를 수십 방 날렸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말해주면서요.

‘함께’라는 말, 참 쉬운 말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늘 곁에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린 그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잇고 사는 것은 없는가?’ ‘과연 함께하는 게 진짜 함께하는 것인가?’ 짚어보고는 있는 걸까요.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너무도 익숙한 그런 것은 잘할 수 있다는 저의 ‘함께’라는 생각은 이제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백지 같은 저의 모습에서 백지가 하나씩 하나씩 글자로 채워져 가고 있는 아직 다 채우진 못했지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새로운 함께’란 말을 아시나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삶의 역경이 저에게 준 보물과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함께하면 우린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고통의 시간이 가고 아내는 이제 건강한 생활을 시작했고 ‘언제 내가 병이 있었나?’라는 듯이 뽀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우린 이제 가족이야

강희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날 항상 응원해 주고 잔정이 많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청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며칠 뒤 다니던 회사가 적자를 계속 하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로 근근이 버티던 중 아버지의 소개로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분을 만났습니다. 곧 대구의 성서공단에 작은 공장을 창업하는데 믿을만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조건을 듣기도 전에 시켜만 주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의 외침은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젊은 패기로 들렸던 지 바로 출근을 통보받았고 그렇게 사장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사장님과 함께 라인 설비를 깔고 몇 되진 않지만 직원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탈하게 회사를

키워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모집 공고를 내도 면접을 보러 오는 이가 많지 않아 바쁠 때는 아내가 한 번씩 시간을 내어 일을 도와주곤 하다가 결국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손이 보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물량에 일손이 부족해 곤란하던 중 말투가 어눌하게 들리는 젊은 목소리의 여성이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소재지와 시간을 가르쳐주고 일하며 기다리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지나 있었습니다.

‘그냥 떠보는 전화였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며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왔어.”

어눌한 반말로 말하는 것이 이상했고 단답은 더 이상했지만 일단 회사 앞으로 나가보니 외국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반말하던 것과는 달리 고개를 깊게 꾸벅거리며 인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총총 걸어왔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외국인이 내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한국말은 잘 알아들으려나? 일해도 문제가 없는 외국인인가? 기존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 표정을 살피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작은 지갑을 꺼내어 내게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있었는데 결혼이민자 F-6이 찍혀 있었고 사장님에게 전화해 보니 일해도 괜찮은 비자라고 말하기에 간단한 면접을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그녀의 이름은 누엔티 쯡두 나이는 25세. 한국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생산직 경력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화할수록 한국 말이 어눌해 대충 어떤 말인지 가늠해서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17살 차이 나는 남편과 4살 난 딸아이가 있고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남편의 권유로 일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그녀와 남편이 써 준 것 같은 이력서를 번갈아 가며 보면서 고민하던 중 내 눈치를 살피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연습시킨 것 같은 어설픈 말에 이역만리 타지로 시집와서 남편 권유로 일한다는 자체가 안쓰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날 쳐다보는 간절한 눈빛이 맘에 걸렸습니다. 나 또한 저런 간절한 시기가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회사 입장에서 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내일 출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같이 출근한 아내가 근심이 가득한 내 모습에 걱정이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냐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면접 봤는데 잘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도 많네. 함께 일하는 회사인데 외국인이면 어떻고 한국인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그 일을 잘할지가 걱정이야.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손짓발짓으로 일을 가르쳐보겠다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그녀를 아내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히고는 현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을 시켜보니 우려와 달리 쯡두는 눈치도 빠르고 손재주도 좋아 일을 금방금방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을 시켜보니 기존

직원과 생산 물량이 비슷할 정도로 일을 잘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외국인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기특하기도 해서 칭찬도 하고 간식도 몇 번 사주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쫑두는 아내에게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말로 하는 대화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아내와 쫑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 안에서나 퇴근하고 나서나 서로 정답게 잘 지내고 거기에 덩달아 나도 껴서 퇴근 후 맥주도 마시고 즐거운 한때도 보냈습니다.

아내가 쫑두에게 “머리가 갈색이면 예뻐 건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월요일 출근 날에 노란색 머리는 예쁜 갈색 머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머리색을 한 쫑두와 아내를 번갈아 보니 사이가 좋아질수록 서로 닮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정화되고 쫑두가 SNS로 알게 된 베트남 사람들을 추천하여 인력도 충원되면서 회사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담당 조장은 쫑두가 맡게 되었고 그 외 한국인들 조장은 아내가 맡으면서 저도 현장을 벗어나 사장님과 같이 영업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쫑두와 저는 3명이 함께 자주 했고 같이 회사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후로 3년이 지난 시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회사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도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던 시기였는데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일찍 마치던 날 쫑두가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분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 편의점을 폐업하고 지금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다 주저하는 모습에 더 덧붙일 말이 있어 보였지만 그것보다 이 집안의 사실상 가장은 쫑두인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쫑두의 집에 방문하기 전 이토록 힘든 시기에 격려가 될 만한 말을 어떤 것을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 마땅한 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아내와 함께 쫑두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쫑두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고 이제 7살이 된 쫑두의 딸이 우리 부부를 보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쫑두는 부엌에서 수다를 떨며 음식을 하기 시작했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해만 된다고 말하기에 쫑두의 딸아이와 방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어느새 허기를 재촉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꼬맹이를 안고 부엌 식탁으로 다가가니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했던 쌀국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돼지고기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큼은 전부 희망찬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쫑두 집에 방문하기 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격려의 말이 생각나 조심스럽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쫑두, 남편 일자리 있어?”

“아니, 지금 일 안 해요.”

“회사에 자리 만들면 할 수 있어?”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자리 정도라면 내 선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남편 일 안 해. 물고기 잡고 컴퓨터 흰 돌 까만 돌 게임해.”

남편은 요즘 쉬면서 낚시나 바둑으로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한집의 가장이 일을 하지 않고 한량처럼 시간을

보낸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만이 감돌 때
쫑두의 서글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이제 회사 그만해요.”

“왜?”

“남편 엄마 있는 성주로 이사 가요.”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였을까. 아니면 남편에 대한 서러움
이었을까. 그건 본인만 알겠지만 고개를 숙인 쫑두의 모습은 그저 안
타까웠습니다. 아내는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 작은 흐느낌이 허물어
져 울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 쫑두의 말을 마저 들어봤습니다. 남
편이 대구에서 편의점과 집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서 참외 농사
를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는 쓸쓸히 끝나게 되었고 그달 말
일까지 일한 쫑두는 아내와는 진한 포옹을 저와는 가벼운 악수를 하
고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회사는 조금씩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쫑
두는 종종 연락이 오다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
락이 끊겨 버렸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쫑두이기에 어디선가 다른 회사에서도 사랑을 듬
뿍 받으며 일을 잘하고 있을 거라며 우리 부부는 한 번씩 그런 얘기
를 하며 쫑두를 기억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
로 가던 중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쫑두예요.”

반가움에 목소리가 커졌고 내 목소리에 아내가 쫑두인 걸 알고 휴

대폰을 낚아채 갔습니다. 아내와 통화가 길어지자 나 먼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내가 씩씩한 표정으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쫑두가 이혼했다네.”

“왜?”

아내의 이어지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쫑두가 성주에 있는 회사에서 프레스라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손을 심하게 다쳤고 그 후에 폭력을 쓰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리 부부가 생각나서 다시 대구로 왔고 쫑두가 경제력이 없어 아이는 당분간 아빠 쪽에서 키운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내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회사에 일하러 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흥분하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쫑두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내일 아침에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쫑두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어 혹시나 해 회사 앞으로 나가니 처음 볼 때처럼 쫑두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려는데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 아니라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데면데면한 인사에 뭔가 이상해 자꾸만 숨겨려는 손을 보니 왼손 엄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없는데... 여기... 일해도 돼요?”

명하니 쫑두의 손을 보는데 가슴이 후벼 파지는 듯 너무 아팠습니다.

“베트남 어머니도 아셔?”

“엄마 몰라. 알면 안 돼. 엄마 울어.”

어느새 등 뒤로 따라온 아내의 울음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야, 다쳤으면 진즉에 연락하지!”

아내를 본 쥬두는 떨리는 어깨로 천천히 다가가 안기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언니, 나 일해야 해. 그래야지 아기 데려올 수 있어.”

아내와 눈물범벅이 된 쥬두를 두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쥬두가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 기간이 제법 됐기에 현장의 사람들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쥬두를 모르는 직원들은 그녀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장애가 있는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인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실수도 쥬두가 하게 되면 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다며 그들은 지나가는 말처럼 핀잔을 주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곳곳이 쥬두는 열심히 일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내게는 힘든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른 이에게는 건방지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늘 쥬두에게 잔소리하던 나이 많은 여직원이 쥬두가 또 실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쫘, 무슨 장애 있는 외국인에게 일 시킨다고... 손가락도...”

여직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내가 달려가 여직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애 좀 놔둬. 숨은 좀 쉬게 해줘야 할 것 아냐!”

순하디순한 아내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중재하지 않았으면 큰 소동으로 번질 뻔했고 아내와 여직원을 회의실에 불러 회사 상사로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크 소리와 함께 쥬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



안한 표정과 불안한 시선으로 회의실 누구에게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냐. 누구나 하는 그런 실수야. 불량이 좀 나면 어때. 내가 다 책임지면 되는 거니깐 괜찮아.”

회의실 밖으로 종두를 보내고 여직원에게 종두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텼네”라고 말하던 여직원은 다음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종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종두를 불러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와 두유도 나눠주며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아닌 함께 일

하는 직원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기를 데려오면 용돈도 준다고 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졌고 현장 분위기가 좋아지니 쫑두의 입가에도 자주 미소가 보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쫑두는 딸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전남편과 애기가 잘 되어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와 같이 살게 된 후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쫑두에게 축하해주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많은 여직원들은 아이에게 용돈을 주라며 10만 원을 건넸고 몇 번을 사양하던 쫑두는 직접 주라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직원들은 다 함께 쫑두의 집으로 가서 베트남 음식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손에 장애가 있더라도 음식 맛은 변함없이 맛있었습니다. 혼자만 지내다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맘껏 즐기던 쫑두에게 아내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쫑두, 넌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쫑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진짜 가족이면 좋았을 텐데. 아니, 가족이 되고 싶어.”

두 사람 말을 엿듣고 다음 날 여기저기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은 시험을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쫑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땀 듯이 기뻐하던 쫑두는 국적을 취득하면 베트남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아내와 같은 성을 쓰기로 둘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이름은 제가 지어주기로 했고요.

지금도 바쁠 때만 회사에 나오고 공부에 집중하는 쫑두는 아니요. 지혜는 올해 꼭 국적을 취득할 겁니다. 우리 회사 전 직원이 다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는 예쁘고 착한 처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 심코 들여다본 거울 속에 또래보다 곱늙은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 처진 쌍꺼풀, 새하얀 달덩이 같은 얼굴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갈색 기미들.

나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듯 내 나 이보다 대어섯 살은 더 늙어 보인다.

그 곱디고운 엄마가 시골 촌구석 농부인 아빠를 만나 뜨거운 햇볕에 녹아 서서히 시들어간 것처럼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마치 그때의 곱늙은 엄마 같다.

“누워 자는 거 보면 셋이 꼭 빼다 박았다. 내 닮은 건 하나도 없어!”

아빠와 나란히 누워 있는 두 딸을 보며 입버릇처럼 내뱉던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거울 속의 나는 엄마를 쏙 빼닮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죽기 전에는 엄마를 닮지 않았던 내가 엄마가 죽은 후에야 비

로소 엄마를 닮아간다.

닮고 안 닮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 말은 그냥 외롭다는 말이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엄마는 내 나이 열네 살에 스스로 세상을 버리며 나와 언니도 함께 버렸다. “안녕, 잘 지내” 인사 한마디 없이 허무하게 사라졌다.

엄마가 사라진 집에선 두 살 터울의 언니가 동생을 위한 요리를 하고 그리 머지않아 연로하신 할머니가 두 손녀를 거두었다. 할머니는 나의 두 번째 엄마였다. 일흔이 넘은 연세에도 손녀들을 위해 목재소 일을 계속하신 우리 할머니.

빠듯한 살림에 그 흔한 삼겹살 한 번 사 주신 적 없지만 맛소금과 후추로 조물조물 밀간을 한 돼지 뒷다릿살 구이는 우리에겐 더 없는 만찬이며 부족함 없는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작고 깡말랐던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난 후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키가 크기 시작했다.

일찍이 어려운 형편임을 자각했기에 열여덟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아홉에는 서울로 취업을 나갔다.

그 무렵 아주 잠깐 새엄마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아빠를 스쳐 간 많은 사람 중 어느 하나도 나에게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은 없었다. 마음을 주고 진심을 다 했지만 아빠와의 인연이 끝나면 가차 없이 끝나버리는 잔인한 인연이었다.

결국 나는 서울 생활 5개월 만에 다시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 동네 은행에 취직해 할머니 밥을 얻어먹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계산이 안 맞아 퇴근이 늦는 날은 행여 어두운 길에 무슨 변이나 당할까 매번 골목 앞까지 마중 나오셨던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나란 아이는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서른 넘어 시집갈 거야” 말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손녀였다가 또



어느 날은 도어락 건전지를 빼고 몰래 밤마실을 쏘다니는 철없는 손녀가 되기도 했다.

그 무렵 사귀기 시작한 다섯 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만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나와 결혼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소개해 주었다.

처음 찾아뵈던 날 “아이고 댔다. 아이고 댔다” 하며 내 등허리를

끌어내리던 우리 어머님.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이 넘치는 어머님을 보면서 철없는 나는 외롭고 적막했던 할머니와의 보금자리를 벗어나 그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에 함께하고 싶어졌다.

야단 한 번 친 적 없이 소중히 키운 보석 같은 손녀딸이 스물다섯의 어린 나이에 임신했다며 결별을 고했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아이고 영감~ 은지가 날 버리고 가니더~”

트렁크 한가득 옷가지만 챙겨 멀어져 가는 손녀딸의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던 우리 할매. 시집살이 기죽지 말라고 악착같이 모은 돈 600만 원을 남몰래 쥐여주던 우리 할매.

그렇게 눈물로 보낸 손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꼴도 보기 싫은 손주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삼겹살 한 근을 사셨다. 펍펍한 돼지 뒷다릿살을 구울 때처럼 소금과 후추를 뿌린 뒤 조물조물 주물러서 손녀에게 퍼주던 사랑을 담아 미운 손주사위도 한 점, 더 미운 손녀딸도 한 점 주셨다.

“가려면 가까이나 가지. 참 멀리도 간다. 밥도 할 줄 모르는기 시집은 어예 가노?”

밥 한 번 제 손으로 해 먹어본 적 없는 철부지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손수 차리고 어설프게나마 제법 효부 흉내를 내며 살았다. 할머니 욕보이지 않으려고, 죽은 엄마 욕보이지 않으려고, 새 가족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할머니와는 자꾸만 멀어졌다.

목 빠지게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전화 통화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 휴대폰을 없애면서 자연스레 뜸해졌다.

일찍이 연년생 아이 둘을 어머님께 맡겨 두고 시집살이에 맞벌이 하며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빌라 한 채를 샀다.

문득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니가 누구라고? 누구 딸이라고?” 할머니에게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나 집 샀어. 이제 분가해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기로 했어.”

해맑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사실은 요즘 남편이랑 너무 많이 싸우고 힘들어. 그때 할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봐.”

하소연도 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마저도 영영 사라졌다. 모두가 호상이라고 살 만큼 사셨다고 누구 하나 우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나만이 미친 듯이 눈물을 쏟아 냈다.

“영감~ 은지가 날 버리고 가니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세상천지 혼자 남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사실 나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다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힘들었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다를 바 없이 겹쳐 보였다. 나는 우울증에 걸린 걸까? 나도 살기 싫은 걸까? 늘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사실 그 무렵의 나는 돈도 일도 남편도 모든 게 힘들었다. 우울도 유전이 되는 걸까? 아니면 애써 감춰 두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이제야 터진 걸까? 나는 그렇게 시들어갔다. 엄마처럼 그 때의 엄마처럼.

할머니 초상을 치르고 돌아와 남편에게 헤어져 달라고 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았다.

나홀쭙 굶었나 보다. 물만 마셔도 토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식탁에 앉아 소곤거리고 계셨다. 남편과 남이 되면 이들 또한 남이 되겠지. 지난 10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함께 살았지만 아빠를 떠난 그네들처럼 이들 또한 남이 되겠지.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엄마도 할머니도 떠난 빈자리에 내가 의지한 마지막 소원 같은 가족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남편의 가족이지 내 가족이 아니구나. 문득 그 사실이 서럽고 또 서러웠다.

그때 어머니가 지쳐 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하셨다.

“헤어져도 된다. 일단 니가 살아야지. 근데 나는 이제 니가 없으면 안 될 거 같다. 나는 내 자식은 안 봐도 너는 보고 살고 싶다. 일단 너 희끼리 살아봐라. 너희끼리 살면 또 다르다. 살아보고 정해도 된다. 그때 해도 된다.”

아버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시부모님, 시동생까지 함께한 10년의 결혼 생활. 우여곡절이 많았고 때로는 밍기도 힘들게도 한 남편이지만 다들 미쳤다고 뜯어말린 내 10년의 시집살이는 쉬이 남이 될 수 없는 피보다 더 끈끈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어머니 아버님 봐서 한 번 더 살아볼게요.”

그제야 물이 넘어가고 죽이 넘어갔다. 어찌면 나는 엄마처럼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치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신혼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과 돈 욕심을 잠시 내려 둔 채 늦둥이 셋째를 낳

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더 이상 남편이 밋지도 사는 게 힘겹지도 앓을 만큼 모든 사랑을 다 품고 태어난 이 아이는 마치 할머니가 보내준 선물처럼 매일 나를 웃게 해준다. 어느덧 늦둥이는 여섯 살이 되었고 큰 아이들은 그때의 내 나이를 훌쩍 넘었다.

세상 부러운 것 없어 보이는 다복한 우리 집. 시부모님 댁은 5분 거리에 따로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지막 부모님인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하며 같이 살아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모든 것을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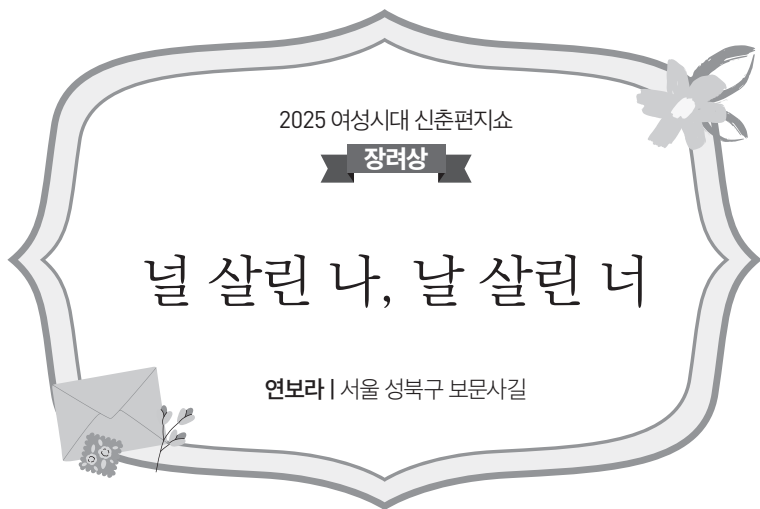
내게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내게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나 역시 엄마만큼 많이 외로웠겠지.

엄마...

엄마를 닮아 약했던 나는 엄마를 닮아 슬펐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 슬픔을 내 아픔을 함께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난 괜찮아.

엄마, 미안해. 엄마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몰라서 엄마의 아픔을 엄마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나는 이제 하루하루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 나를 지켜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내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자라 삶에 지치고 힘에 겨울 때 진짜 엄마로 사랑을 주는 엄마로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열심히 살아갈게.



폭 폭 찢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몇 해 전 여름, 때 이른 폭염만큼이나 느닷없는 일이 내게 들이닥쳤다.

“혹시… 내 얘기 좀 들어 줄 수 있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보니 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동생이 서 있었다. 7살 터울 때문인지 나를 유독 어려워하던 아이가 고민 상담을 요청해 오다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나는 껌싸게 그녀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 안 울고 싶는데 자꾸 눈물이 나.”

숨죽여 흐느끼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난 그대로 굳어버렸다. 삼시간에 휘몰아친 거짓말 같은 일들도 통곡보다 서글픈 소리 없는 울음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냥 감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다. 당황한 나를 보고 그녀가 입을 꼭 다물어 버릴세라 차분

히 대화를 이끌었다.

“엄청 힘들었겠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괜찮으면 우리 내일도 얘기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몰래 품어 온 고충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나면 응어리가 충분히 풀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동생은 지치지도 않는지 밤마다 서너 시간씩 무려 한 달을 묵 놓아 올었다.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덜컥 겁이 났다. 제발 큰일이 아니길 바라고 바랐건만 그녀가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의 싸늘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며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으나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동굴로 숨어든 그녀는 뜯지도 않고 쌓아둔 택배 상자와 무질서하게 뒤엉킨 옷가지, 먹다만 음식물 냄새로 가득 찬 방에서 죽은 듯 잠만 잤다. 간혹 자신의 도피처를 빠져나와 세상과 마주한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술 냄새를 질게 풍기며 내 앞에 나타났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온몸이 흠투성이가 된 동생을 볼 때면 내 심장은 하릴없이 얼어붙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나를 유심히 쳐다보던 그녀가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솔직히 말해.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 뭐가 힘들...?”

“거짓말하지 마! 나 버리고 싶잖아! 아니다. 언니 안 귀찮게 내가 그냥 콧 죽어버릴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비수 같은 말이 날 아프게 찔렀다. 더러워진 몸을 닦아 주다 말고 동생의 등을 세게 후려쳤다.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아프다는 거 면죄부 아니야. 아픈 거 무기 삼아서 남한테 멋대로 상처 줘도 되는 거 아니라고!”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난 언니를 처음 본 동생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어떤 상태든 좋으니 그저 살아만 달라는 게 그리 큰 욕심인가?’

곱씹을수록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너, 내가 너처럼 힘들어지면 나 버릴 거야?”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나 너 안 버려. 아니 절대 안 놓쳐.”

눈물범벅이 된 동생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보기만 해도 쓰라린 생채기에 연고를 발라 주다 눈을 질끈 감았다. 내 안일한 대처가 동생의 병을 키웠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날 강하게 짓눌렀다.

고난은 절망을 먹고 자라는 것일까?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 행렬은 끊이지 않고 몇 년째 이어졌다. 기나긴 시련에 평생 튼튼한 울타리였던 엄마 아빠가 소리 없이 힘을 잃어갔고 비빌 언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날이면 그녀가 언제든 먼 곳으로 떠나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밤새 내 주위를 맴돌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나를 끈으로 칭칭 동여매고 싶은 심정이었다.

딱히 누군가에게 기댈 형편이 아니었던 내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나는 참담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들을 하나하나 마비 시켜 나갔다. 목구멍이 얼얼해질 때까지 터져 나오는 설움을 참고 또 참았다. 불행 중 다행인지 나중엔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슈퍼히어로도 아닌 주제에 벼랑 끝에 매달린 그녀를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 죽고 싶다는 울부짖음은 살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였기에 동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동생 맞춤형 생활 규칙 만들기에 밤낮없이 몰두한 결과! 동생의 체력과 걷는 속도, 활동 반경까지 고려한 ‘마음 일광욕’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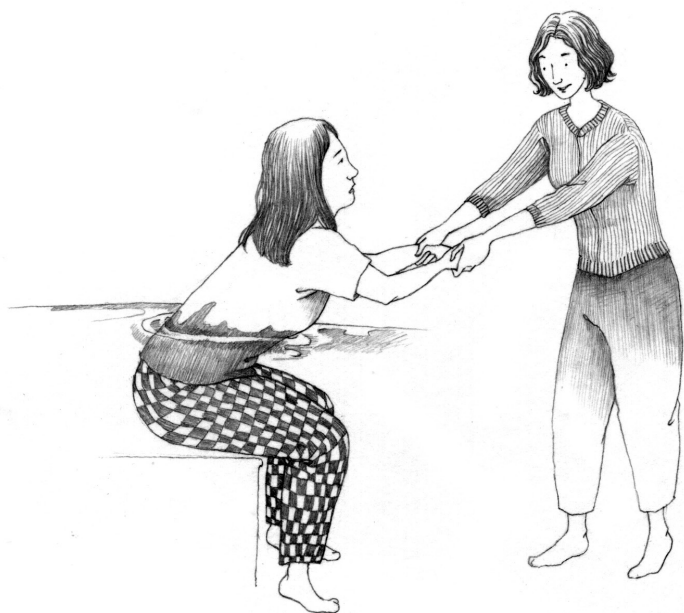
‘하루 30분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기.’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장시간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된 그녀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시행 초기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혔지만 나는 기어코 동생을 어르고 달래서 집 근처 하천을 누볐다.

“와 대박! 이것 좀 봐! 엄청 예쁘지?”

무뚝뚝한 내가 팔자에도 없는 호들갑을 떨어대면 동생은 마지못해 내가 가리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다. 찰나의 눈 맞춤일지언정 들꽃의 군센 생명력이 그녀에게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좋은 싫든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던 어느 날 아까 본 야윈 길고양이가 마음에 걸린다며 다음엔 간식을 챙겨 와야겠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본인은 큰 뜻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때 나는 희망을 보았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그녀에게 미래에 대한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녀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은 지 딱 7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축축했던 몸과 마음이 한결 보송보송해진 동생은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저분한 안식처를 말끔히 쓸고 닦더니 고칼로리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어 치우던 식습관을 고쳐 나갔다. 마침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끝이 났



다. ‘휴…’ 너 나 할 것 없이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자 나는 핑그르르 나동그라졌다. 중심을 잃고 퍽퍽 넘어지는 날 향해 자기 비하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개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하더니 꼴이 이게 뭐냐? 어휴 한심해. 망가진 네 인생 어디서 보상받을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는데 정작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깊은 좌절에 빠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밤거리를 헤매는 날이

늘어났다. 하지만 버거운 상황을 꾸역꾸역 삼켜내느라 생긴 체기는 쉬이 내려가지 않았다. 우울의 넝쿨에 걸려 새파랗게 질려가는 나와 달리 세월은 쉼 없이 제 갈 길을 갔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부질없는 나의 질문은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맥없이 방 안을 떠돌았다. 요란한 알람 소리에 등 떠밀려 억지로 몸을 일으키던 찰나 낮선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힘들어도 입을 좀처럼 열지 않는 언니를 향한 동생의 세심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언니! 나 아플 때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근데 그동안 언니가 많이 지친 것 같아. 내가 필요하면 말해줘. 기다릴게.>

내게도 삶의 무게가 벽처럼 다가올 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일렁였다. ‘숨기고 싶은 내 모습도 나인 걸 인정하니 편해졌다’는 추신이 남긴 다정한 온기가 날 오래도록 감쌌다.

그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덥석 움켜쥔 나는 호박죽처럼 몽근한 위로를 품에 안고 날마다 집을 나섰다. 별이 좋은 날엔 있는 힘껏 태양을 끌어안고 비가 오는 날엔 주저 없이 흠뻑 몸을 적시며 걷고 또 걸었다.

감정의 물 빠짐이 수월해지고 나니 캄캄한 마음의 방에 홀로 앉아 있는 나를 직시할 용기가 생겼다. 모진 풍파를 견디느라 애쓴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자 눌러두었던 울분이 화산처럼 솟구쳤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영영 소리 내어 한참을 울었더니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잔뜩 굳어 있던 나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퍼져나갔다.

사람 사는 게 참 재밌다. 대차게 쓰러져 본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익혔고 무탈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요즘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나날을 그 누구보다 당차게 살고 있다. 나는 뼈뼉뼈뼉한 감정의 파편들을 주워 삶의 여백을 채우고 있고 동생은 온 식구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멋진 인생 역전 신화를 써 내려가는 중이다.

그녀는 무려 20kg 감량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잦은 폭식과 약 부작용이 남긴 흔적은 매일 2시간씩 흘린 땀방울을 따라 자취를 감추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은 동생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 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어느새 언니라는 에어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늙은 청년이 되어 있었다. 환골탈태한 동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대견스러움을 넘어 존경심이 절로 샘솟는다.

“너 맨날 울던 애 맞아? 언제 이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언니 이거 꿈 아니지? 나도 신기해!”

마음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었는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리품처럼 꺼내 든 우리의 눈빛이 윤슬처럼 반짝인다.

가슴 시린 계절이 지나고 봄에 스치는 햇살이 제법 포근하다. 사랑 사랑 부는 봄바람에 그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진심을 실어 보내야겠다.

“있잖아. 난 너랑 장난을 치다가도 종종 이런 상상을 해. 인생의 암흑기를 오롯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와야 했다면 우린 지금처럼 웃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켜 왔던 모든 순간이 눈물 나게 감사해지더라. 힘든 고비 내 손 꼭 잡고 이겨내 주고 내가 방황할 때 날 꼭 붙잡아준 장한 동생아. 우리가 함께 일군 이 행복 오래오래 누리며 잘살아 보자! 늘 고맙고 사랑한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3등을 소망합니다

조성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00 세까지 산다 해도 이미 절반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올해 57세이고 주말이면 20대 30대 여성들과 함께 여성 야구단에서 야구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으로 살면서 39세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고 미용실에 갔다가 잡지에 실린 여성 야구단 유니폼이 예뻐서 호기심에 캐치볼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야구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는데 그즈음에 희정아와 수연이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늦은 나이이지만 변함없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을 참 잘하는 희정이 그리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마음씨가 한결같이 착한 수연이, 이 두 사람이 “우리 그냥 캐치볼만 해도 좋으니까 같이 해요~”라고 말하는데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가 2020년이니까 한창 코로나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실내 운동은 제약이 많았던 때라 집 근처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곤 했는데 셋이라서 짝이 안 맞아서 희정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생 조카를 데리고 와서 넷이서 일요일만 되면 동네 공원에서 만나 캐치볼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에 맞을까 봐 조심 조심 눈치 보가며 해야 했고 걷기 운동하는 어르신들께 꾸중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년인 아줌마 두 명 그리고 젊은 여성과 초등학교 남학생 이렇게 넷이서 캐치볼을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솔직히 동네라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아들 친구 엄마 같은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눈만 내놓고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만치서 축구를 하던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에 당황해서 쳐다보니까 남편이 하는 조기축구회 아저씨들이 공원 옆에 있는 축구장에서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남편은 당직이라서 거기에 없어서 제가 몰랐던 거죠.

희정이와 수연이, 희정이 조카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며 열심히 캐치볼에 열중했어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게 됐고 희정이가 SNS에 우리 넷이 연습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꾸준히 올렸더니 그걸 보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나둘 연락도 오고 공원으로 우릴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이 좋은 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여성들을 더 모아서 사회인 여성 야구팀을 만들어



보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한테 연락해 오는 분들은 거의 모두 야구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이더라고요. 글러브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여성, 야구공을 처음 던져보는 여성. 그렇게 실력은 초보지만 열정은 꼭 찬 20대에서 40대 여성 15명으로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2021년 7월엔 울진에서 열린 전국여자야구대회에 당당하게 출전도 했어요. 보통 그런 대회에서는 상대 팀을 추첨으로 뽑는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 첫 상대 팀으로 대회 우승 후보팀을 뽑는 바람에 팀원들의 원망을 한 바가지 받았습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경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포기를 모르는 팀이니까 비장한 각오로 출전했는데 역시나 상대 팀은 실력을 뽐내며 무

려 38점이나 득점을 하더군요. 그래도 ‘젼잘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38 대 뺑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이닝에서 안타도 치고 4점이나 낸 거에 우린 모두 흥분했고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약체이다 보니까 그 후로도 전국대회 같은 경기에서 추첨으로 우리 팀을 뽑으면 상대 팀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은 팀에서 경력자를 많이 받는데 저희 팀은 아직도 야구를 처음 하는 분들만 주로 찾아오셔서 실력이 매우 느리게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경기마다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걸 느껴서 작지만 큰 성취감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4년 차! 이제는 아주 가끔이지만 이기는 경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막내 셋별이, 듬직한 세희, 선아, 혜현이, 희재도 있고요. 말수는 적지만 늘 팀과 팀원들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는 수연이와 희정이도 여전히 말없이 함께 뛰고 있어요. 등 번호 79번 정유금 선임 주장님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팀원들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스물다섯 명!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들이 모여서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함께’ 야구를 하다보면 지금 생각해도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는 각자 맡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야구장에 모여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깨알 소통도 하고 전국여자야구대회 참가도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팀 목표는 전국대회 첫 1승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못해도 3번은 이겨보려고 오늘도 봄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연습합니다. 클라우드 나인 여성 야구팀~ 응원해 주세요!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싱글맘 러브스토리

최은혜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휴 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었다.
 “지금... 어디쯤이세요?”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몰랐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인 줄로만 알았다. 눈빛을 보내도 그렇게 못 본 척하더니 마음을 보여도 그렇게 선을 긋더니. 곧바로 지하철에서 내리며 답장을 보냈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졌다. 마음은 급한데 하필 오늘따라 지하철 노조가 파업 중이다.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밖에서 기다리느라 춥진 않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에이~ 에스컬레이터는 왜 이리 느려터진 거야!’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니 그가 보인다. 환한 미소에 발밑이 몽글거리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가 내 손을 꼭 쥐여주는 순간 바보처럼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어디가 좋겠냐고 물었지만 어디라도 괜찮았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가게로 들어갈 때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저문 하늘에 다시 해가 뜨는 것 같았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잠시 바깥으로 나와 볼래요?”

무슨 용기였을까. 소란한 가게에서 벗어나 밤의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다. 그의 손을 잡아 내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 보라 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라 했다. 가만히 나를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그럼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금 입 맞춰도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서른여섯, 내 삶에 사랑은 다시없을 줄 알았다. 이혼이란 과정을 거치며 마음이 무너졌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몸이 망가졌다. 외모를 가꿀 시간도 내면을 돌볼 여유도 없었다.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버거웠다. 오늘을 버티느라 바빠서 내일을 그린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

그저 마음에 품은 바람일 뿐 이루어질지 몰랐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하루가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몇십 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인연이 아니라면 무엇이 운명일까. 가치를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사랑하고 빗소리를 좋아하고 꽃을 보면 멈춰서는, 신



뢰가 관계의 바탕이라 믿는 사람이었다.

같은 생각을 하다 똑같은 문자를 동시에 보내는 일도 흔했다. 사소한 우연이 기적 같았다.

물론 다른 점도 있었다. 나는 느리고 멈춤이 잦은 사람이고 말로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 서툰 사람이다. 그는 나의 느낌을 기다려주겠다고 하며 나의 멈춤을 심표로 삼겠다고 했다.

다정한 말을 건네고 따스하게 품을 내어주고 작은 일에 작지 않은 정성을 담아내는 사람. 따스한 품위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이

렇게 근사한 사람이 내 남자라니.

그와 첫 번째 여행을 떠날 때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찾아가갈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물론 아이를 맡기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철도 노조의 파업 예고에 비상계엄까지 모든 것이 그와 만남을 가로막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막진 못했다.

사람들로 가득한 부산역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다 마침내 마주했을 때의 감격이란. 짐을 내버려두고 달려가 그에게 안겼을 때 그 순간의 벅차오름을 어찌 설명할까. 몇 번이고 입을 맞추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산행 기차에 타고 있는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아서 기차 안이 너무 답답하고 건조해서 그에게 편의점 콜라 한 잔을 부탁했는데 단숨에 마셔버린 콜라처럼 그동안의 그리움이 녹아내렸다. 그가 건네준 꽃다발처럼 밤이 피어올랐다.

부산에 도착해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에게 준비해 온 선물을 건네주었다. 커플 양말과 장갑 그리고 속옷 세트. 거기에 다친 손가락이 걱정돼 챙겨온 밴드와 연고까지.

그는 꼭꼭 눌러쓴 편지를 읽고는 내가 사랑스럽다고 했다. 함께 보낸 1박 2일이 달콤한 꿈 같았다. 내내 윤슬처럼 반짝였고 때 순간이 노을처럼 찬란했다.

시간은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어느새 기차 차창 밖에 그가 서 있었다.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 기차에 오르더니 내게 입을 맞춰주었다. 죽어도 좋을 황홀이었고 이래도 되나 싶을 환희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의 문자가 도착했다.

<안녕, 내 사랑. 그 꽃이 시들기 전에 너에게 갈게.>

그로 인해 내 보통의 날들에 매일 밑줄이 그어졌다.

아이와 처음 만나던 날을 어찌 잊을까. 함께 유치원에 데리러 갔더니 부끄러운지 잠시 내 뒤에 숨었지만 이내 나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을 한 쪽씩 잡고 해거름의 거리를 걸었다. 아이가 돌이 결혼할 건지 묻더니 우리의 손을 자기 가슴 어림으로 모아주며 “탄탄다탄~ 탄탄다탄~” 노래를 불렀다.

동네 중국집에 들어가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켰다. 아이 입에 묻어 있는 소스를 닦아주고 탕수육을 잘게 잘라 아이의 접시에 올려준다. 아이는 나와 그에게 탕수육을 먹여준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둘은 어느새 친해져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먹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날이 처음이었는데도 이미 그렇게 살아온 가족 같았다.

그와 함께 보낸 연말은 어떠했던가. 기차역 플랫폼까지 마중 나와 있다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와 바다를 걷고 그가 차려낸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는 친구와 가족들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그의 마흔네 번째 생일에는 나도 함께였다.

그와 함께할수록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커져갔다. 그에게 도장과 통장, 카드가 든 상자를 건넸다. 상자를 맡기는 것은 나의 삶을 그에게 통째로 건넨다는 뜻이었다.

이후에 얽힌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다. 지난하고 지저분했던 이혼 과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고백했다.

“작년에는 살고 싶지 않단 생각까지 했었어. 정신과에 가서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고 자존감도 체력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는 가만히 들어주었다.

“이런 나라도 괜찮아? 무르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흠이냐고 한다. 당신이 열심히 살아낸 증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이곳까지 오느라 참 애썼다고, 이렇게 내게 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부터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고 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힘겨워했고 나는 미안해했다. 서로에게 지친 날들도 서로를 밀어내려 한 날도 있었다. 무슨 자격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건지 자책한 밤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고 처음처럼 껴안았다.

이런 나를 왜 사랑하는지 물으니 그는 당신만이 나를 비춰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 눈빛이 기다린다면 언제든 내게 돌아올 거라고 했다.

이 여행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누군가 내게 ‘지금 어디쯤인지’ 묻는다면 사랑 안에 있다고 답하리라.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면 사랑과 함께 걷고 있다고 답하리라. 그와 같이하는 모든 발걸음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매일이 새로운 날이리라. 매일 처음인 것처럼 그에게 입을 맞추리라.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를 껴안으리라.

그에게 건넨 엽서 속 사진이 내 여행의 끝이길 바란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저들처럼 늙어가는 것이 새로이 꾸게 된 나의 꿈이다. 어디에 닿던 그와 함께라면 멋진 여행이 되리라 믿는다.



또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모모입니다.

층마다 8개의 방에 30여 명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낯선 이 공간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날의 망설임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민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던 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3년 전에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만만치 않은 사회 속에서 오로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주말에 일의 흐름이 끊기는 것마저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건 좋아했지만 경쟁 관계 속에서는 버티지 못하거나 밀려나곤 했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은 한계에 부딪혔고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즈음 저의 멘털은 무너

저 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깊었기에 떠나보내 드리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아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증상은 심한 무기력증으로 왔고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원을 2년간 다니면서 일상을 회복됐고 사회적으로도 더욱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무너지면서 일하던 도중 공황장애가 극심하게 몰려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유일한 가족인 오빠를 제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신과 의원을 다녔고 모두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사람들,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단절되어 병원이라는 공간에 나를 가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곳에서 사계절을 보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들어와 가을 단풍을 보게 되었고 첫눈이 오는 날은 쇠창살 너머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환자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하며 저는 또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갑니다. 정신과 환우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가정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하루도 외출을 안 하면 버티지 못하던 제가 일주일에 단 네 시간의 외출 시간만 허락받았는데도 이 작은 공간에서 6개월을 살아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생을 마감하려다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 메뉴가 나오면 소소한 즐거움에 함께 웃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는 매점 사장님은 간식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신기한 것은 200명이 넘는 환자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식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일상을 지내지만 이곳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 시기, 질투, 미움, 다툼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음이 아픈 이들이기에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현병, 조울증 환자가 대부분인데 조현병 환자들은 특정한 망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중에도 삶의 희로애락 속에 살아갑니다. 병원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조울증 환자들은 저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자신을 찾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입원하고 퇴원하는 환자들과 여섯 번 달력을 뜯었습니다. 그동안 제 침대에는 많은 인형이 생겼고, 서랍 속에는 많은 파우치와 볼펜 등이 있는데 모두 환자들과 복지사님에게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낸 2024년의 생일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환우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간식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를 깜깜한 방으로 불러 초코파이로 꾸민 케이크에 성냥으로 만든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메모지나 노트를 뜯어서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공동체 가정이라는 곳도 많이 어색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의 고통이 병이 된 이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니 병원에서처럼 서



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 계획되지 않았던 6개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어떤 시작도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용기가 더 생긴 듯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보낸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환자에게 잘해주다 오히려 욕을 먹고 저의 물건까지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빼앗긴 물건보다 사람에게 느낀 실망감에 슬퍼서 하루 종일 식사도 마다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침대에 앉아서 울었지요.

저의 조울증도 한몫했겠지만 상처를 치유하려고 온 곳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간 머리 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나의 이상을 벗어난 즐거운 행복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내가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교수가 될 수도 없는데 이제 와 공부해서 뭐 할 거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꿈은 정교수가 된다는지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 된다는지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제 삶으로 말하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나의 세상은 살아갈 만한 것이며 다른 이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 믿으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봅니다.

봄꽃이 피려고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맺혀 있네요. 새봄 새 희망으로 어두운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손잡아주는 이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신영복 님의 시를 되새기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를 응원합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아이들과 함께한 산티아고 순례길

한강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는 나이에 결혼하고 연년생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빠에게
도 비로소 함께하는 온전한 가족이 생겼다. ‘함께’라는 의미
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어찌면 가족이 아닐까? 아이들이 태
어나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즐기
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이 마시지도 않았던 술도 완전
히 끊었고 담배도 끊었다.

매일 서둘러 퇴근하여 거실에 이불이란 이불은 다 펼쳐 놓고 아이
들과 함께 씨름과 레슬링을 했다.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난장판
인 집안을 엄마는 늘 한숨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뭐 그리 나쁘
지만은 않은 듯했다.

한바탕 씨름과 레슬링이 끝나면 함께 목욕인지 물놀이인지 알 수
없는 목욕을 신나게 했다. 매번 두루마리 휴지는 물을 잔뜩 머금고

이유도 모르는 채 욕실 천장에 붙어 있었고 수건이란 수건은 다 나와 욕실 바닥을 채웠다. 언제나 고향소리에 가깝게 웃어접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욕실에 가득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인지 한 번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분명 조용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웃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신나게 목욕을 끝내면 커다란 침대에 함께 누웠다. 양팔에 한 놉씩 팔베개를 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찾아와 각자의 방에 숨기 전까지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한 신나는 일과였다.

모든 걸 함께하던 아이들에게 기어이 그놈이 오고야 말았다. 안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사춘기란 놈이 반기지도 않는데 굳이 찾아와 서로를 힘들게 했다. 언제나 함께하던 아이들의 방문은 굳게 닫히고 끊이지 않던 웃음은 무표정한 멍쩍음으로 변했다.

아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관련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유명한 강의를 들었다. 그 많은 정보에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아이들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아빠와 좀 멀어져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빠와 좀 멀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운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멋지게 멀어져 보기로 어렵게 마음먹었다.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아이들과 멀어지는 아빠의 서운함도 위로해 주고 변화된 관계의 이정표가 되어 줄 계기. 그 계기가 되어 줄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었다.

고심하고 고심하다 찾아낸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40여 일 800km를 함께 걸으며 아이와 아빠가 아닌 청년과 아빠로 여행을

통해 보다 성숙된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상상했다. 완주하면 멋지게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어렵게 잡은 시간과 관참은 의도로 시작된 산티아고 순례길. 북한군이 중2, 중1을 왜 무서워했는지 뼈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꽤 관참은 아빠로 만들기 싫었던 것 같았다. 아빠도 아이들도 진정한 순례자라도 된 듯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 사고로 인한 전쟁으로 끝없는 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집에서도 이렇게까지 싸워 적은 없었는데.

순례길 첫날부터 인정사정없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의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돌짜를 잃어버린 피레네 국제 미아 사건이 벌어졌다.

1500m 피레네산맥을 무슨 동네 뒷산 오르는 듯 마음만 가볍게 출발한 아빠는 너무 준비가 없었다. 정상을 넘어서자 큰 아이는 극심한 배고픔, 피로와 어지러움 등 저혈당 증세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위태로웠다. 위태로운 게 아니라 위험했다. 피레네산맥을 혼자 넘는 것도 힘든 중년의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큰 아이의 배낭을 짊어졌다. 커다란 배낭 두 개를 등과 배로 짊어지고 휘청거리는 아이를 부축했다. 아빠도 체력이 바닥 나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큰 아이 때문에 티도 못 내고 이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돌짜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짜늘한 공포가 순간 밀려왔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돌짜가 보이지 않았다. 육체적 힘겨움에 더해 끝도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답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똥줄이 타다 못해 내장을 태우고 정신마저 태우고 있었다.

여행을 와서도 휴대폰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이 미워 휴대폰 유럽

유심칩을 빼앗아 아이들의 전화기는 먹통이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먼저 내려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최악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뜬금없는 희망뿐이었다. 그저 마을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해볼 뿐이다.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함께 오자 했는지 후회에 몸서리를 치며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가슴을 두드렸다.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둘째는 보이지 않는다. 작은 마을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기 코드에 두 손이라도 꽂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 전기가 흘렀다. 미칠 것만 같았다.

‘마을에 없다면 아직 산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인가? 곧 해가 질 텐데 빨리 다시 산으로 들어가 아이를 찾아봐야겠다.’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큰 아이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며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대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유난히 신호음 소리가 크게 귀청을 때렸다. 그 소리에 귀가 아팠다. 그래도 빨리 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신경을 신호음에 집중했다.

신호음 너머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 요동친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발걸음을 서둘러 옮겼다. 소머즈보다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소리를 찾아갔다.

‘아~하’ 아빠 입에서 긴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레스토랑의 커다란 나무 대문 뒤에 둘째가 보였다. 콧물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둘째가 그 커다란 나무 대문 뒤에 있었다.



이 무지막지한 시트콤의 내용은 이러했다.

피레네산맥 중턱 오리슨 산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휴대폰 유럽 유심칩을 잠시 돌려주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소통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때 둘째는 여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참으로 기

막힌 타이밍이 아닐 수 없었다. 걷는 내내 둘째의 표정은 어둡고 말도 없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때 아빠는 그런 사정이 둘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둘째는 여자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혼자 미친 듯이 서둘러 산에서 내려와 레스토랑 와이파이존을 찾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커다란 레스토랑 나무 대문 뒤에 숨어 보이스톡으로 헤어지지 말라며 여자친구에게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녀석을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아빠는 얼굴만 붉으라푸르라 춤을 추고 있었는데 둘째가 이리로 오라는 듯 팔을 들어 짧고 나지막하게 손짓을 했다.

‘아이고 그래도 아빠에게 의지를 하고 싶은 것인가?’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둘째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뭐 이런 눈이 다 있단 말인가. 오라는 손짓이 아닌 저리 가라는 손짓이다. 참 어이가 없다.

둘째는 저녁도 먹지 않고 여자친구와 통화했다. 깊은 밤 들어와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둘째는 이후 3보 1 눈물, 1일 1 대성통곡이라는 과제를 정말 충실히 수행하며 아빠의 눈을 끌사납게 만 들었다.

피레네산맥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도, 피레네산맥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일 것이다.

시작이 핵폭탄이었는데 순례길이 순탄할 리 만무했다. 매일 매시간 사건 사고가 없는 순조로운 순간은 없었다. 싸우다 싸우다 그 싸움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려는 순간 둘째가 조용히 다가와 함께 걸으며 말을 걸어 왔다.

“아빠, 스페인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잖아.”

“그런데 왜?”

“아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함께 여행하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토르가 그 큰 망치로 아빠 머리를 세차게 내리친 듯했다. 아빠는 둘째의 멋진 말에 아주 부끄러웠다. 생각해 보니 여행 내내 아빠의 잔소리는 아이들의 잘못보다는 아빠의 욕심과 바람들이었다.

‘휴대폰 보지 말고 풍경을 봐라. 외국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라. 유명한 곳이니 사진 찍자. 저기 유명한 곳이니 힘들어도 가자 등등’

기억해 보니 아이들은 잘 해내고 있었다. 길을 묻는 것도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숙소를 예약하고 리셉션에 상담하는 것도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모두 아이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었다. 아빠는 뒤에서 돈만 쥐여주었다.

이참에 아이들과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안주 삼아 긴 대화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극적인 화해를 했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순례길을 걸었다. 딱 그날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내일 싸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협하고 화해하고 싸우기를 반복했다. 쳇바퀴 속 햄스터처럼.

치열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이 끝난 이후 아이들은 어디를 다녀오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변한 것이 일도 없는 일상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 막대한 비용과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 도돌이표를 만들어 오다니 한심스러웠다.

어이없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더 이상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욱이 큰 아이는 학교에서 야자를 끝내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를 훌쩍 넘기니 얼굴 보기 더 어려웠다. 가끔 집에서 만나면 운동을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면서 허세 가득 어깨를 솟구치고 유난스럽게 힘을 잔뜩 주어 좌우로 어깨를 흔들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런 모습이 유난스럽고 눈꼴사나워 신나게 뱀처럼 혀를 놀려 약 올리고 싶지만 이제 아빠도 나이를 더 먹었으니 간지러운 입을 꼭 다물고 흐뭇한 미소로 위장하여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빠만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생했다. 우리 아빠.”

우연히 온 가족이 함께하게 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둘째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아빠를 향해 “아니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 갔을 때 피레네산맥에서…”

아빠를 바라보는 저 눈빛은 뭔가? 아이씨~ 중년에 여성 호르몬과 다 생성 탓인가? 갑자기 감동이 온 정신을 몽글몽글하게 만든다.

그렇게 시작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우리가 함께한 모험담은 밤늦은 시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순례길을 함께하지 못한 엄마도 아이들의 이야기에 토끼보다 더 높게 귀를 치켜세우고 집중했다. 그러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요새 운동을 하면서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 무슨 듣던 중 반가운 말이던가. 첫째가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아마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한 경험이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어깨 뿔으로 걸었던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입을 함부로 놀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꼭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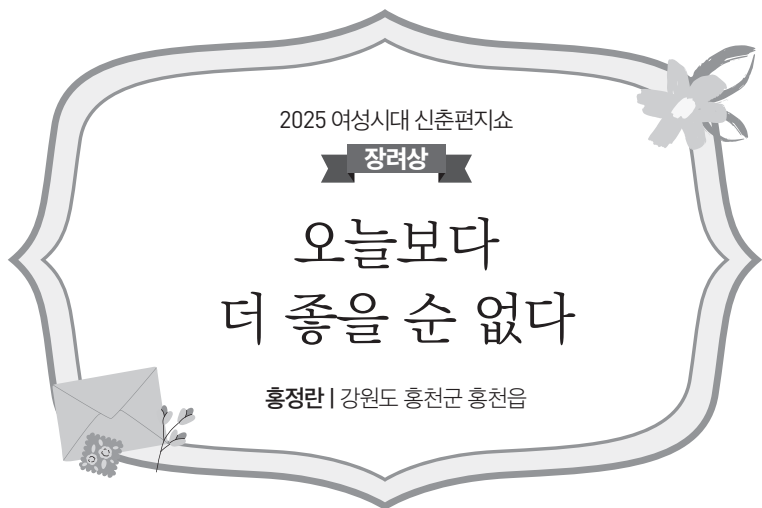
아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토해 낼 때마다 우리 부부는 연신 식탁 밑에서 서로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며 코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뻔한 훈계와 지나친 가르침으로 엄마의 말이 길어지면 엄마의 정강이를 향해 아빠의 발이 달려든다. 평소 같으면 인상 쓰고 달려들었을 엄마가 찰떡같이 이해하고 말수를 줄인다. 아빠가 엉뚱한 주제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면 엄마의 발이 아빠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찬다. 주제의 차선 이탈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강이에 멍이 들어도 이 얼마나 기분 좋고 기쁘든지 고통마저 행복했다.

그날 이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작은 기억이 부싯돌이 되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로 변지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디를 다녀오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아이들의 일상을 이제 다시는 의심도 후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함께한 그 시간의 경험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의 보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중2, 중1은 아빠를 환장하게 하고 적을 환장하게 만들던 사춘기이었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끝낸 지금에 두 녀석은 아빠를 도와 적과 싸울 내 편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세상 살맛 나고 든든하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기대가 된다. 언젠가 한쪽은 남고 한쪽은 떠나가더라도 그때 함께한 기억은 영원히 기억되어 살맛 나는 기억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 무것도 없는 들판이었다. 추수가 막 끝난 시점인지 학교로 향하는 도로 양쪽에는 밭, 밭과 맞닿은 산뿐이었다. 마을 입구로 보이는 곳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10여 분 걸어도 주택은 보이지 않았다. 드문드문 펜션처럼 보이는 곳이 있을 뿐. 귀가 멍해지는 걸 보니 꽤 지대가 높은 산꼭대기 그 언저리쯤 학교가 있는 것 같았다.

‘와~ 산꼭대기에 이런 학교가 있어?’

사진을 옮겨놓은 듯한 산 풍경, 학교 앞 개울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설레고 기대되었지만 마냥 설레고 좋을 수만은 없었다.

“엄마! 나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 오늘 반했어. 엄마 운동장 봤어? 다 흙이더라. 정말 신기하지 않아? 엄마 체육관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와~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7살 아들은 한껏 신이나 방방 뜨며 호들갑을 떨었다. 흥천에 있는 학교 시설도 보고 학교 면접을 보고 온 터라 더 신이 난 것 같았다.

“그리 좋아?”

“응! 응! 엄마~ 엄마는 내가 매일 공부만 하고 나만 아는 아이로 자라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 여기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도 괜찮아?”

“그건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가끔 놀러 와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 가보자 한번.”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평범하지 않다면 평범하지 않은 가정. 우리 식구는 아들과 나, 남동생과 앓을 못 보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네 식구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이 30대 그즈음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이 되셨다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전남 다도해 그 많은 섬 중 하나인 금오도라는 작은 섬에서 나고 자라셨다. 그래서일까? 앞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 섬 안에서는 어디든 다니셨다.

내가 어렸을 적엔 내 손을 잡고 밭에 가서 밭일도 하셨고, 바닷가에 갯것(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잡는 일)을 하셔서 그날은 고동을 한 술단지 삶아 먹곤 했다. 그 작은 섬마을은 온 우주 같았다. 매일 마주하는 아침 햇살도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앞산과 뒷산도 계절에 따라 나는 농산물들도 모두 특별했다. 땡벌 아래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는 일, 까슬까슬한 보리를 베어 타작하는 일, 쟁기질을 하는 일, 술방울을 줍는 일, 철마다 바닷가에서 고동을 따는 일 등. 어찌면 더듬거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농사일을 돕고 갯것을 가는 일

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었고 아빠와 엄마와 동생은 그 작은 섬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잘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아이를 낳고 아픈 이별도 했다. 가진 것 없이 100일 갓 지난 아들과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무던히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늘 한 번 쳐다볼 여유도 없는 나날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많은 걸 이루고 싶은 욕심이 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 날이었다. 하루 장사를 시작한 나에게 전화벨이 무섭게 울려댔다. 062로 시작되는 그 번호….

“빨리 오셔야겠어요? 어머니가 위독해요!”

이 무슨 청천 날벼락 같은 말인가? 그래 우선 침착하자.

“무슨 일이시죠?”

“정란 씨 전화 아십니까?”

“맞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 여긴 전남병원인데요. 어머니께서 어제 응급실로 오셨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3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어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오세요.”

한 손으론 통화를 한 손으론 검색했다.

‘보이스 피싱이겠지. 그럴 거야 그럴 거야!’라는 생각으로 해본 검색 전화번호는 전남병원 전화번호가 맞았다. ‘괜찮을 거야.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엇그제까지 전화 통화할 때만 해도 체기가 조금 있다고는 하셨지만 괜찮다고 했잖아, 그치! 아무 일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다.

“제가 지금 인천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할게요.”

부라부라 차를 끌고 당시 4살 아이와 남동생을 태우고 여수로 향했다. 병원에선 계속 재촉하는 전화가 왔고, 혈액이 부족해 혈액 공급이 원활한 광주로 이동하니 광주병원으로 오란다. 차가 흔들릴 정도로 속도를 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보호자는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란다. 병원 근처 작은 여인숙에 아이와 나 그리고 동생이 유난히도 끄끄해 보이는 이불에 손이 가질 않아 그냥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기다리기만 했다. 괜찮다는 소식이 오길.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지.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그치?”라는 말에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계셔 주세요”라는 전화에 동생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어디선가 “정란아, 바지계떡(손바닥만한 송편 모양의 팔이 들어간 밀가루떡) 해줄까?” 하며 해맑게 웃으실 것만 같던 엄마는 동생과 아이를 보며 웃어주셨고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고는 떠나버리셨다. 늘 8살 아이 같았던 엄마, 8살 지적장애를 앓는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왜? 난? 엄마와 쇼핑도 목욕탕도 그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없나라는 갈망하는 철부지 아이였을지도 모르겠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 한없이 웃었다. 내가 사드렸던 옷이



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딸이 보내준 것들이라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텍도 떼지 못한 채 케케묵은 장롱 속에서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마냥 점잖게 있었다.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고생하는 딸 생
각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을 것 같은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 또 눈
물이 나고 그 눈물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현실이었
다. ‘아, 그냥 요양원에 모실까? 아니면 그냥 인천으로 모실까? 어떡하
지?’라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아빠! 나도 모르겠어. 지금 아빠도 힘들지? 나도 그렇고. 그냥 우
선 인천으로 갑시다. 뭐 얘기 재롱이라도 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뭐 결정이 나겠지. 그냥 3개월만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근디 집이 좀 아주 작긴 한데. 차라리 좁은 집이 아빠가 익숙해지는데 더 나을 수도 있어.”

주위에선 말했다.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다고, 아이도 어린 데 혼자 아빠랑 아이랑 케어가 가능하겠냐고. 어려운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평생 눈이 되어준 엄마를 잃은 아빠 맘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즈음 남동생도 “누나 혼자 괜찮겠어? 나도 같이 가지 뭐?” 하며 조그마한 경차에 짐을 한 차 싣고 전라도에서 내가 살던 인천으로 왔다.

8평 남짓 작은 원룸에서 엄마를 떠나보낸 딸, 아들, 아내를 잃은 아빠 그리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생활을 시작했다.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진짜 가장이 된 것이다.

일을 닦치는 대로 했다. 낮에는 중국집 주방에서 양파도 까고 설거지도 하고 저녁엔 작은집 주방에서 수제 잼, 다시 팩 등을 새벽까지 만들어 중국집이 쉬는 날은 그것들을 들고 나가 작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다. 보험회사 영업도 시작했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장터에 나갈 때는 돗자리를 들고 나가 아버지와 아이도 동행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흥이 많으신 분이래 노래자랑이 있는 장터에서는 어깨를 덩실덩실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우리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벗어나 비록 월세지만 조금은 더 넓은 방이 두 칸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주위에서 시기 질투를 하기도 했다. 허가받지 않은 곳인 집에서 수제 잼이나 청, 다시 팩 등을 만드는 일은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집 보증금도 겨우 모은 우리에겐 상가 보증금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다.

그즈음 아버지 건강은 안 좋아지셔서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 하였고, 그 병원비나 간병비는 고스란히 내 뒀이었다. 그 와중에 동생은 일자리를 잡지 못해 말 그대로 놀고먹으며 게임만 하는 백수 저 녀석이 “누나 혼자 괜찮겠어?”라며 따라나설 때는 세상 든든해 보였던 내 두 눈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긴 일렀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무보증 상가도 얻었다. 뭐든 해봐야 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다.

섬에서 나고 자라 생전 처음 인천이란 도시에 와 작은집에서 감옥 살이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섬에서 나고 자라 섬에서만 생활해 오던 30대 총각 동생은 대도시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사랑 하는 남자와 이별한 순간부터일까? 엄마와 이별한 순간부터일까? 내가 놓치고 가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그때쯤 너무 고되게 일을 해서일까? 아니면 쉽 없이 달려와서일까? 나도 아프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물만 먹어도 토하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지럽기만 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녹다운이 온 것이다. 병명은 없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신경정신과 한 번 가보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말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저 해맑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더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가지고 있던 경차마저 폐차시켜야 해서 장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엮힌 데 댈친 격으로 내가 발목까지 다쳐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결정지어야 했다.

‘그래! 신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어! 나누자! 장사는 접고 아버지는 당분간 동생에게 케어하라 하고 일당직이라도 저 녀석 일을 시키자. 그렇게 그냥 쉬자. 인제 그만 잠깐 쉬었다 가라고 쉽의 기회를 주신 거야’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당시 6살 아들이 병원에서 쪽잠을 자며 엄마의 물을 떠다 주며 병간호할 만큼 커져 있었고 나는 40대로 접어들었고 아버지는 70대로 접어들었다. 난 20년 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쉽 없이 달려 왔던 것이다.

퇴원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시골로 가자!”

동생이 화들짝 놀랐다.

“섬으로 가자고?”

“아니? 이제 찾아봐야지. 영종도도 좋고 영흥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찾아보자.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학교와 아버지가 집 밖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래 누나 알아서 해”라며 내심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영종도 학교, 영흥도 학교, 전교생이 100명이 넘지 않은 곳의 초등학교들을 찾아다녔다. 아이와 함께 그러는 동안 아이는 7살이 되었고 지도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강원도 홍천 이런 곳을 알게 된 것이다.

“강원도 학교로 가자.”

“응 그래.”

그때 당시만 해도 동생은 강원도라는 이름을 가진 인천의 초등학교쯤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 대신 할 말이 있어. 나 인제 나 혼자 가장 안 하고 싶어. 내가 알

아보니 사람 한 명이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최소 70만 원은 든다고 하더라. 하지만 우리 집 평균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저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명당 40만 원의 생활비를 줬으면 좋겠어. 아이는 내 아이니 내가 낼 것이고 너도 성인이니 너 생활비는 네가 내줬으면 좋겠고 아빠도 장애연금이 나오니 장애연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냈으면 좋겠어”라는 말에 아버지는 서운해하셨지만 동생은 흔쾌히 “40만 내면 됨?”이라고 했다. 내가 늘 혼자 해결을 해왔으니 동생은 누나가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다.

‘그래 강원도 홍천으로 가자.’

연고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가 인천을 떠나 홍천으로 간다고 하자 주위에서는 모두 말했다.

“아니 무슨 7살짜리 애가 그 학교 가고 싶다고 거기에 간다고? 미쳤네!”라는 말도 있었고 “아니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려고?”라는 질문에는 허무맹랑한 대답을 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야.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거미줄 치면 뭐~ 그 거미 잡아먹고 살지 뭐”라며 대책 없이 마음만 앞선 철부지 같은 말만 뱉어냈다.

“아버지는 모시고 가?”

“차라리 인천에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서울로 간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이 교육을 위해 시골로 간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다.”

다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았다. 하지만 나와 아이는 이미 반했다. 홍천이라는 곳에 그곳 산의 사계절이 궁금했고 청량한 줄줄 흐르는 물소리에 반했다.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무엇보다 수도권과 1시간 거리 아닌가.

‘그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일자리 없겠어. 마당 있는 집 구하면 아버지가 별 좋은 날 평상에라도 나올 수 있잖아. 동생은 뭐 공사 일이라도 하면 되지. 어딜 가나 일 할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첫 번째 난관은 집이 없었다. 임대주택은 물론 전세 그 흔한 월세조차 없는 곳이 이곳이었다. 인구 중 70% 이상이 자가로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 홍천이란단.

“우선 원룸에서 시작하자!”라며 보증금 500에 월세 40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먼저 홍천에서 거주하면서 집을 구해보기로 했다. 아버지께선 “허허 내가 전라도 섬에서 왔는데, 느그들 덕분에 인천에서 다 살아봤는데, 강원도까지 간다고?”라며 은근히 홍천으로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평생을 보내신 아버지께 산골로 가자는 딸이 내심 걱정도 되는 눈치였다.

나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아이는 운동장이 넓은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고 매일 발품을 팔며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8개월쯤 시골집 하나를 보았다. 마당이 있고 마당에 붙어 있는 텃밭이 있고 방치되어 있던 집이라 청소를 많이 해야 했고, 케케묵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이 집. 몇 년 동안 농사짓지 않은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 덕분에 월세가 저렴했다. 읍내와는 떨어져 있어서 조금 외지긴 했지만 집 앞에는 홍천강물이 흐르고 집 뒤에는 산이었고 서너 가구 있는 조그마한 마을 맨 안쪽 집이었다.

‘이 집이다.’

“아들~ 이 집 어때?”

“어! 괜찮긴 한데 엄마가 청소하려면 힘들 수도 있겠는데. 난 거미를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는 거미를 무서워하잖아. 저기 거미줄이 많

아”하며 손가락으로 거미줄을 가리켰다.

“괜찮아! 청소하면 돼! 이 집으로 결정했어.”

결정은 했지만 솔직히 겁나기도 했다.

그해 초겨울 우리 가족은 홍천 주택에서 새로이 시작했다. 하지만 차와 집과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는 걸 아니까. 집 안 청소를 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릴 만큼 방치되어 있던 집이었고, 봄에는 동생이 텃밭을 곡괭이로 일구기 시작했다. 텃밭을 일구고 집 입구에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텃밭 한쪽 구석에는 부추밭을 또 한쪽 구석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모종을 심었다.

100평 남짓 텃밭을 일궈 놓고 보니 욕심이 생겼다. 옥수수는 200그루만 심고 동생이 좋아하는 감자도 심어야지. 아버지 좋아하는 고구마, 내가 좋아하는 땅콩. 아~ 태양초도 한번 해볼까. 요쪽은 쌈채소 자리. 초보 농사꾼이 욕심도 많게 덤벼들었다. 잡초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겠다고 덤벼댔다.

이곳의 봄은 참 고왔다. 봄철이면 앵두며 블루베리가 열렸고, 참두릅 나뭇잎들이 빼꼼히 나올 때면 따서 데쳐드리면 아버지는 맛있다고 드셨다. 쌈채소는 퐁퐁 어는 한겨울만 제외하고는 늘 마당 꼬트머리에서 날 반겨 주고 여름이면 마당 한켠에 불을 피워 옥수수를 한술 단지 삶아 객지 지인들에게 택배를 부쳤다. 지인들이 바람 쐬러 홍천에 올 때면 우리 집에도 들러 마당 한가운데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부르면 밤하늘의 별들은 장단이라도 맞추는 듯 반짝반짝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곳.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시작한 이곳에서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물론 지금도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동생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비를

미룬 적은 없다. 아버지는 이곳에 오고는 건강이 좋아지셔서 병원은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가는 정도다.

좀 넉넉할 땐 한우를 굽고 좀 덜 넉넉할 땐 대패삼겹살을 먹기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잡기로 했다. 지금 이 계절 이면 빼꼼히 올라오는 새싹은 또 얼마나 기특한가. “엄마 주려고 내가 가져왔어” 하며 사탕을 건네주는 아들의 손길은 또 얼마나 이쁜가. “오늘 고기나 먹을까? 불 피워?” 하며 장난 자글자글 동생 표정은 또 얼마나 활기찬가. “오늘도 고생했다”라며 미소 짓는 아버지 표정은 또 얼마나 인자하신가. 알람 소리 대신 “꼬끼오~” 하며 꼬꼬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깨고 이 꼬꼬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매일 알도 놓아준다. 보안 장치 대신 집 앞마당엔 초코, 쿠키 강아지 두 친구가 있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고양이들도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지금은 지인들이 나에게 말한다.

“네가 대인배였네.”

“아빠가 아주 좋아지셨네. 동생이 저리 웃음이 많았었나?”

“늘 엄마가 저리 지지해 주니 애가 저리 자존감이 높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오히려 나를 부러워한다.

난 새로운 곳의 정착을 꿈꾸며 난 지금 또 새로운 가게 개점을 준비하며 오늘도 한 발짝 다가가는 중이다. 나는 예전처럼 10년 뒤 내 차와 내 집 평생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갈망하던 것,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 와서 찾았다. 바로 ‘오늘’이었다.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도 오늘은 새로운 것이니까. 난 새로운 오늘을 시작한다. ‘오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딸과 함께라면 꿀지도 아름다워

박현주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저희 딸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멀쩡하고 고등학교 2학년 열여덟 살 딸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저는 평생 딸에게 미안합니다. 사고 후부터 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남편 얼굴 또한 제대로 볼 용기가 안나 침실에서도 돌아누워 자곤 했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했고 딸 또래 애들만 보면 죄책감이 들어 '우리 애도 저렇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내가 저런 자유를 빼앗았구나' 하는 후회까지 잠시도 그냥 놔두지 않고 늘 힘들게 했습니다. 만약 딸 다리가 예전처럼 될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이식시켜 주고 싶다고 잠든 딸을 보며 울고 또 울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런 저를

보는 남편의 한숨만 늘어났습니다.

“또 울어? 그만 좀 울어. 당신 우는 거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 보겠어. 당신이 일부터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은서도 우울해하잖아. 당신도 힘내고 은서도 힘내고 우리 모두 힘내자! 은서, 예전처럼은 못 걸어도 좋아질 거야.”

“알았어. 나 이제 정말 안 울고 우리 은서만을 위해서 살아갈게. 우리 은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게 해서 꼭 걷게 해줄 거야.”

남편 격려에 억지로 잠을 청하지만 다음날 눈 뜨면 또다시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새벽, 주방에서 푹푹푹 반찬을 만들며 아침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이거, 은서가 당신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성인이 된 딸이 엄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원망이 담겨있을까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는데 엉뚱하게도 함께 마라톤에 나가자는 글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마라톤 나가요. 엄마랑 손잡고 함께 마라톤 뛰면서 저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마라톤이라니? 아무리 단축코스라도 마라톤이라니? 딸아이 편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육체가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운동인데 제대로 걷기 힘든 딸이 뛰겠다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밥상에서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마라톤에 나가자고? 너 끝까지 뛸 수 있겠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예전의 네 모습만 생각하면 안 돼!”

“저 몇 번이나 생각한 끝에 엄마한테 편지 쓴 거예요. 엄마랑 저랑 함께할 수 있다면 뭐든 못 하겠어요? 엄마, 같이 뛰어요. 부탁이에요~

제발 제발이요~”

딸은 제 물음에도 마라톤을 함께 뛰자고 했습니다. ‘네 몸 상태로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딸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힘들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물었더니 할 수 있다며 같이 참가하자고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얼마 후 딸과 같이 ‘단축 마라톤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달리는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서는 딸 걸음걸이를 보자 관계자 분께서 많은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나 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호음에 맞춰 출발했는데 예상대로 딸은 처음부터 맨 뒤로 처졌고 불과 100m도 달리지 않았는데 온몸이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너한테 100m는 다른 사람이 100km 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몇 번을 그렇게 타일렸지만 딸은 제 손을 외면하며 외쳤습니다.

“저 꼭 완주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옆에서 딸을 따라가며 부축해 가며 딸이 빨리 포기해 주기만 바랐습니다. 무리해서 다리가 더 아플지 걱정됐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 딸은 다시 달렸습니다. 딸의 고집에 백기를 든 저는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하고 딸 손을 덥석 쥐고 걷다가 뛰다가 또 걸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여러 시간이 걸려서 골인 지점에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불편한 다리를 끌고 결국 끝까지 달렸다는 자체가 저희에겐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골인 지점에 도착하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둘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네가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괜찮아요. 엄마가 저 때문에 더 힘들었지요?”

딸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또 껴안고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네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용서해 줘. 너 볼 때마다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렇게 붙들고 한참을 울고 나니 몸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우리 모녀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목욕하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느냐고요. 딸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남들보다는 많이 느리지만 자기 다리로도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함께할 수 있는 걸 찾았다니 제 괴로움을 조금이라고 벗겨주고 싶었더니 저는 가슴이 짝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쉴 새 없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 눈에는 어리기만 한 딸 가슴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니 너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저 다리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도 비관적이었는데 딸 말을 들으면서 엄마인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해 ‘네가 어떻게 마라톤에 나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달리는 중간에 쥐가 나고 힘들었을 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고 엄마인 제 등에 기대고 업히고도 싶었지만 그러면 엄마한테 자신의



당당함을 보일 수 없을 것 같아 참고 또 참았다며 앞으로도 자신 있게 살아가겠다는 딸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스물아홉 살 딸은 ‘장애인 기업 일 자리’에 취직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건강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고 느리지만 딸은 아주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딸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 이제 엄마도 우리 은서가 하는 일 격려해 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고 지켜줄게.”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특별상

엄마와 함께

이영숙 |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본동로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팠던 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아 선천적인 약골로 태어난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후로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20층 계단을 올랐고 수시로 산을 올랐습니다. 약했던 폐활량이 좋아지더군요. 근육이 생기고 몸이 단단해졌지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몇 년을 소홀하며 노력하지 않았더니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리곤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021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늑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왔습니다. 전조 증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석 달 전부터 손이 아팠고 그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곤 했습니다. 또 동네 병원에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병만 키운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이라는 난치병에 걸렸

다 하더군요. 염증 수치가 최고조에 달해 걷기도 힘들었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다 잠들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는 각자의 일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1남 1녀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아들은 캐나다에 딸은 멀리 인천에 살고 있기에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일찍 돌아가셨고 2남 2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소도시에서 혼자 사시던 엄마가 급기야 부산인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 때 우리 엄마 나이 85세였지요. 엄마는 긍정적이고 참 강한 분입니다. 그 연세에도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춰 교통정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순경 엄마’라 부르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백발의 인상 좋은 엄마를 사람들은 ‘천사’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엄마는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제게와 주셨어요.

하지만 입맛이 떨어진 저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살이 쭉쭉 빠졌고 모든 근육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니 소변이 줄줄 새버렸고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바닥에 앉기도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택시 문을 열지 못해 기사님이 열어주기도 했지요. 엄마는 그런 딸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기도 했지만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은 예민해져만 갔고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고 일쑤여서 엄마를 더 속상하게 만들곤 했지요. 엄마의 성화 때문에 억지로 밥을 먹었고 염증에 좋다는 생레몬 두세 개를 갈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녹즙을 갈고 레몬을 갈아 저를 먹이셨어요. 먹지

않으려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셨지요. 혼자서는 걸음도 서툴러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했던 저는 그런 엄마의 보살핌으로 점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통 부었던 발과 손은 많이 가라앉았고 살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엄마 집으로 가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웬만큼 집안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복지관 노인 일자리 일을 신청해서 또다시 교통정리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엄마의 봉사 일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교통순경 올 엄마 파이팅!”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운동 삼아 하던 일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며 그만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집에서 두문불출하셨나 봅니다. 엄마의 힘듦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이 대충이었고 그나마 안 드실 때가 많아 위가 너무 많이 헐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병원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놀면 뭐 하니 일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당신이 언제나 강한 줄만 알았습니다. 88세 엄마가 늘 대단하게만 보였는데 너무 어지럽다며 수화기 너머로 호소하실 땐 가슴이 덜컥했지요. 엄마 집 가까이 형제들이 살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탓도 있습니다. 엄마 집을 방문한 저는 한없이 나약해진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함께하겠어요.”

엄마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 듯했습니다.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안 보여 찾으니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아 당신 자리라



고 고집을 부리고 계셨습니다. 원래 자리 주인은 절대로 안 비키는 할머니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황당할 만도 하지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며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기운이 없으셔서 옷도 입혀 드려야 했지요. 너무 가벼워진 엄마가 깃털이 되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지인들이 보내준 건강식품을 드시게 했더니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더군요. 제게 건강식품을 보내준 분들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 지 일 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웬만한 집안일도 하실 만큼 회복하셨지요. 목욕탕에서의 해프닝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호수 입구를 잘못 찾아 헤매는 일도 이젠 거의 없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만 바라보고 사신 엄마. 어느 날 엄마는 아

픈 과거를 풀어놓으며 슬픔을 삼키셨지요. 일찍 여의어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아버지, 어릴 적 친척 집에 얹혀살며 구박받은 이야기, 떨어져 사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따라가느라 제대로 배움을 못하셨다며 울먹거리셨지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2남 2녀 자식들 잘 키우셨고 자존감을 굽히지 않으신 엄마입니다. 못 배우고 못난 엄마라고 자책하며 우시던 올 엄마.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친구도 없고 노인정도 가지지 않는 엄마를 위해 뜨개질, 쉬운 휴대 폰 게임 등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 결국은 제 몫이 되고 말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가르쳐 드리고 있답니다.

요즘은 엄마의 버킷리스트도 만들어봅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안 먹어 본 음식 ‘함께’ 먹기입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유명하다는 식당을 적어놓고 다니고 있지요. 회전초밥, 장어, 향어회, 술밥, 국밥집, 보리밥집, 수육, 족발, 파스타 등 다양합니다. 분명 드셔봤을 텐데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잘 드시는 엄마 모습이 너무 좋아서 SNS에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와 ‘함께’ 여행 가기입니다. 제주도, 포항, 영광, 해운대, 송정, 인천 등 그동안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해외도 가고 싶어 여권도 만들었지요. 가까운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서 엄마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살갑지 못한 딸이라 죄송할 때가 많은데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은 늘 사랑이 넘치고 넘칩니다. 엄마의 남은 생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우리 함께 오래도록 즐겁게 살아요.”

엄마와 함께라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시상식 그 진한 감동의 현장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난 하루가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꿈을 꾸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 감격과 감동을 혼자만 느끼기에 죄송해서 2025 신춘편지쇼 시상식이 도대체 어떻게 할래 궁금하신 당당이님들이 계실 걸 알기에 이렇게 글로 나누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이번 신춘편지쇼에서 입선을 한 조수아의 엄마입니다.

그 지지난주 수요일 가족 대화방에 올려 퍼진 메시지.

<아아~ 기숙사에서 돌아가는 금요일 10시 중대 발표가 있으니 가족 모두 모이세요. 특히 엄마 주무시지 말고 꼭 기다리세요.>

‘남친이 생겼나? 아니면 체대 입시를 포기한다는 건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드디어 금요일 10시. 온 가족이 모였다. 분위기가 삼엄했다.

“아아~ 마이크 테스트. 다 모이셨죠? 지금부터 중대 발표가 아니

소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수아 님 입상을 축하합니다. 4월 25일 10시 반까지 MBC 골든마우스홀로 수상하러 오세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편지 낭독.

아마 그 시간부터였을 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도 꼬집어 보고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 싶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연차를 쓰고 친정엄마께 꽃단장을 하리라 전화를 드리고 아들 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근데 딱 걸리는 게 수아였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험학습으로 홍콩에 가야 했던 것이다.

그럼 주인공이 못 온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수아가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에 입상해서 시상식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표 변경 가능할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목요일 오후 비행기표가 있었다. 딸은 흔쾌히 그 즐거운 홍콩에서의 시간을 하루 접고 목요일 밤늦게 집에 도착했다.

4월 24일 딸은 홍콩에서, 아들은 금산 별무리학교에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오고, 엄마는 평창리에서 오고 그렇게 온 가족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모였다.

다음날 피곤했을 법도 한데 다들 신이 나서 일어났다. 그런데 각자 꽃단장을 하느라 그만 시간이 늦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부랴부랴 출발했는데 “야야, 꽃다발 놓고 왔다.” 아빨싸, 그렇게 다시 차를 돌렸고 꽃다발을 안고 다시 탔는데 “야야, 휴대폰 놓고 왔다.” 또다시 차를 돌렸다.

제시간에 못 갈까 봐 걱정되어 남편의 얼굴은 굳어져 갔다. 우여곡

절 끝에 10시 30분을 넘겨 상암동에 도착했다.

입구를 찾아 헤메는데 어디선가 엄청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가 다가왔다.

“네가 수아구나. 너무너무 축하해.”

“아니 별것도 아닌데요. 뭘.”

“어머? 수아야, 별거 아니라니 너 대단한 일 한 거야?”

그랬다. 작가분이 친히 마중을 나와 주셨고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MBC 로비에서 여러 차례 사진도 찍어 주셨다. 그렇게 친절과 따스함으로 무장하신 스태프들의 환대는 쭉 이어졌다.

말로만 듣던 골든마우스홀은 정말이지 으리으리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희은 언니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수상자들과 가족들의 표정은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이윽고 흰칠한 모델 핏의 일중 씨와 푸른빛으로 치장을 하신 희은 씨가 등장했다.

한 분 한 분 인생이 담긴 소감을 들으며 같이 울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의 주인공들이 저 분이시구나! 사연의 진심이 더 진하게 다가왔다. 그분들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대본 없는 드라마가 따라 없었다.

“너 하고픈 말 다 해”라며 격려해 주신 작가님의 당부에 맞게 수아는 고새 수상 소감을 아주 몽클하게 적었다. 무엇보다 자기도 신춘편 지소에 글을 내고 될 거라 굳게 믿고 있다가 푹 떨어진 쌍둥이 동생이 수상 소감에 등장해서 쌍둥이 동생의 얼굴은 확 피어올랐다.

그리고 경석 씨와 일중 씨의 듀엣곡. 정말이지 진심을 꺾꺾 눌러서 노래해 주셨다. 마지막 피날레 희은 씨의 노래 ‘그대만 있어 준다면’ 까지. 쓰러진 남편에게 제발 옆에만 있어 달라는 고백을 담았다는 곡을 들으며 남편에게 짝꿍 더 잘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보기도 하



였다.

그렇게 정성을 담은 시상식이 끝났고 두 손 가득 선물 보따리도 안겨 주셨다. 먼 길 든든히 드시고 가라며 점심식사까지. 구내식당이라는데 무슨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맛나게 점심도 먹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 이렇게 호강했는데 한마디씩 소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수아 덕분에 할미가 완전히 호강했다. 진짜 MBC도 와 보고 이렇게 상 받는 것도 보고. 우리 수아가 벌써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 보니 할미가 완전 행복하다.”

친정엄마는 눈물을 비치셨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깨기 싫은 꿈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는 지인들에게 수아의 글을 보냈다.

“엄마 그만 보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

“근데 수아야 엄마가 보내는 이유는 말이야.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이토록 이쁘게 자란 건 그분들의 사랑이 있어서이기에 너무 너무 고맙다고, 같이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서야.”

진짜 그랬다. 수아 두 돌 때 이마가 찢어져서 초보 엄마가 너무 놀라서 택시도 못 부를 때 달려와 주신 이웃, 친구 관계로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신 5학년 담임 현주 선생님. 그분들이랑 같이 키웠기에 수아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정말 정말 함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시대 식구들도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창원시 성산구의

여성시대 가족 김병균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베이양아~
밥 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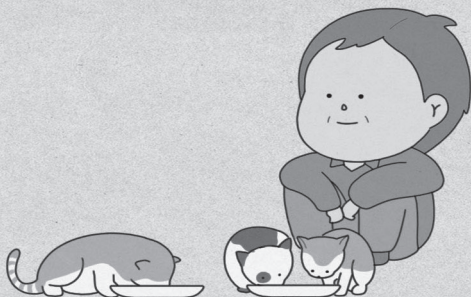
베이양베이양



베이양베이양



되직한지 벌써 9개월이 되어간다.



나의 놀이터 과수원으로 가면
어김없이 작은 고양이 세 마리가 나를 따라나선다.

몇 달째 챙겨주어서인지
이젠 제법 걸을 내어주는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노라면



32년간 소방관으로서 살았던
지난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지난 2022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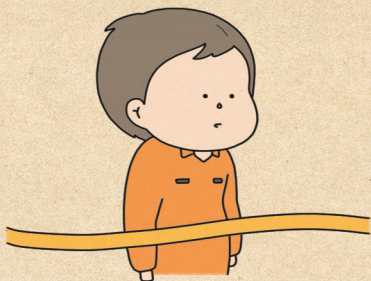
태풍으로 쓰러진 고목에 깔려
직원 한 명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동료에 대한 염려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만 무사했다는 죄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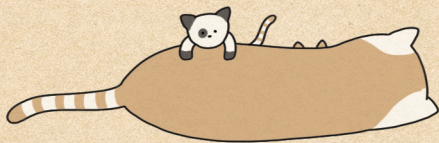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에
또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치열했던 나의 32년이 흐르고
끝이라는 것에 다다른자
나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지자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힘든 날의 연속이었다.

그 즈음 만난
한여름 시골 창고에서 죽은 어미 곁에
울망줄망 꼬물대던 녀석들



어쩌면 내가 배양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녀석들이 함께 지금 시기를 잘 보내게 도와주는 것 같다.



더불어 언젠가 나와 배양이들의 놀이터에
기적을 일으킨 나의 동료가 찾아와주길
매 순간 간절히 원한다.



40여 년 간 목재와 함께한 외길 인생



IBK기업은행 인천산업유통센터지점 거래고객

(주)우드뱅크 이태호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우드뱅크는 1982년 설립 이후

40여 년이 넘게 국내 목재 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태호 대표는 ‘정체는 퇴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드뱅크를 국내 최고의 목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우드뱅크는 1982년 태성목재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목재 기업으로 성장했다. 처음 창업할 당시에는 건축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였지만 1995년 남양주에 공장 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라왕 도어, 문틀, 창호를 직접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남양주 마석에 2,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중심지인 인천 북항배후단지로 본사

를 이전하면서 우드뱅크 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세 확장과 함께 랩핑 도어, 랩핑 문틀, 몰딩 등 생산 품목을 확대하였고, 최신형 몰더기와 방부탱크를 도입하여 목재 수입부터 가공·방부 처리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현재 우드뱅크는 인테리어 및 목조주택 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재, 다루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부목, 테크재, 구조재, 루바, 내장재, 마감재뿐 아니라 석고보드, 집성판, 계단재, 도어 및 창호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인천 북항배후단지에 약 5,280평 규모의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고 연간 국내 목재 수입량의 50%를 유통하며 국내 목재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대표는 20대 초반에 업계에 뛰어들어 40여 년 가까이 좋은 품질의 목재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드뱅크는 품질 좋은 방부목 소재를 확보하고 가공과 방

부 처리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었다.

40여 년간 한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사업 시작 초기에는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업계 선두 주자로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례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태호 대표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도어 용재로 홍송이 주로 사용되던 시절, 보다 저렴하면서도 치수 안



정성이 높은 나왕을 도입하고 기계화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이후 방부 설비를 설치하여 원가 절감을 이루고 직수입을 통해 고품질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방부목을 확보하면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차별화를 강구하고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고자 도전하고 혁신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호 대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들과 이익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복지에 적극적

으로 투자하고 대한적십자사에 고액 기부를 함으로써 작년에는 감사상을 받기도 했다.

“무작정 사세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원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목재를 제공하고 소송 각제 및 합판 수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더 큰 발전을 위해 젊은 사고를 유지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인천산업유통센터지점 김훈철 지점장은 “우드뱅크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내실 있는 기업”이라며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드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으로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며 상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님께서 40여 년간 외길 인생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목재 기업으로 성장시킨 우드뱅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드뱅크 이태호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인천산업유통센터지점 김훈철 지점장

! 우드뱅크 이태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라.
2.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3. 사회 환원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주)우드뱅크

대 표 이태호

전 화 032-581-4494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35번길 21

홈페이지 <http://www.woodbank.net/>



밥집 사장의 꿈이 담긴 전통의 맛, 한촌설령탕



IBK기업은행 부천지점 거래고객

(주)이연에프엔씨 정보연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이연에프엔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밥집 사장을 꿈꾸던 정보연 대표의 꿈이 담긴 기업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운영하던 '감미옥'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밥집 사장이라는 꿈을 키워갔다. 20대 후반 역삼동에 한촌설령탕을 오픈하며 꿈을 이룬 그는 어느새 전국 250여 개 매장을 관리하는 국내 대표 외식 전문기업의 CEO로 성장했다.

이연에프엔씨는 현재 한촌설령탕과 육수당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전국에 250여 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식 전문기업이다. 설령탕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업력을 자랑한다.

이연에프엔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식품 제조 및 HMR(가정간편식) 분야를 아우르며 종합 외식 전

문기업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충북 음성에서 이전,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약 3,300평 규모의 식품공장을 설립하여 육수뿐만 아니라 간편식(HMR) 생산 시설을 비롯해 양념육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육가공 생산 설비도 갖추어, 전국 매장과 간편식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식재료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본사가 직접 컨트롤함으로써



외식기업을 넘어 종합 식품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연에프엔씨가 역삼동의 작은 설렁탕집에서 시작해 전국 250여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외식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연 대표의 성실한 태도와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는 요식업은 요행이 통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간혹 외식업계에서 성공한 그에게 장사의 비법을 묻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닌 성실함이 장사의 비법이라고 조언한다. 매일 새벽 직접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 정보연 대표 또한 오랫동안 매장에서 직접 성실하게 손님을 맞았다.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능력과 전문성으로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랜 세월 외식업계에서 일하며 위기도 많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소고기 관련 외식업계 매출이 급감했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 정책으로 인해 외식업계 전체가 침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련은 항상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온다'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회사를 운영하며 마음에 새



기고 있는 '중용'의 철학도 사업을 지탱하는 큰 힘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이나 욕심이 앞설 때도 많지만 그는 늘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중용의 철학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연에프엔씨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통의 깊이와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통의 외식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맛과 정성이 들어간 최고의 음식을 손님들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업계 최초로 AI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40년간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장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운영과 손익 관리 영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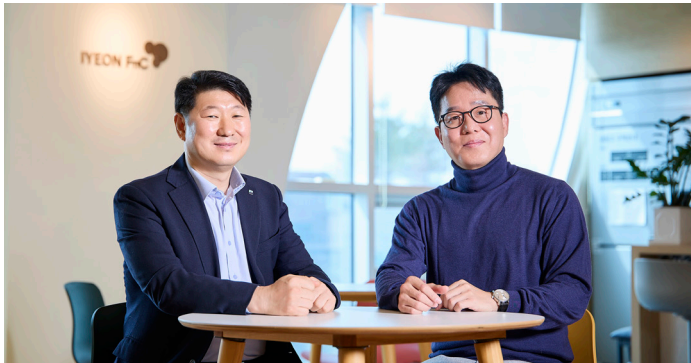
정보연 대표는 ‘한촌설명탕’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기업이지만 매장



을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는 것은 무작정 매장 수만 늘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악순환을 막고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외식업의 본질은 결국 신뢰라고 믿기에 맛과 품질은 물론 시스템, 기술 그리고 진정성까지 갖춘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다.

IBK기업은행 부천지점 강상철 지

점장은 “이연에프엔씨는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결합한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해 온 매 순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외식 전문 기업이 되도록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부천지점 강상철 지점장(왼쪽)과 (주)이연에프엔씨 정보연 대표

❗ (주)이연에프엔씨 정보연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전통의 맛, 첨단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라.
2. 위기를 버티면 기회가 온다.
3. 항상 중도를 지키고 일희일비하지 말라.

(주)이연에프엔씨

대표 정보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457 에스엔씨타워 10층, 11층

전화 02-1566-5266

홈페이지

<http://hanchon.kr>



시간 욕심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요 며칠 날씨가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린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의 젊은이를 보면 날이 더운가 싶다가도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 서늘한 기운에 금세 재채기와 콧물 타령이다.

휴일 아침이면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남편은 6시 반쯤 아침 밥을 먹자고 부른다. 아이쿠 늦잠 좀 자게 놔두지! 그래도 자리에서 몽그적대지 않고 후딱 일어나 같이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오늘 나는 9시까지 잤다. 눈을 뜬 게 5시 20분쯤 되기에 조금만 더 자자했더니, 잠깐 눈 붙인다는 게 3시간 40분을 더 잔 셈이라 놀랐다. 일부러 안 깨웠다는 남편의 말! 고마워라. 어찌 된 일인지 초코까지 내 옆에서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웠다. 이게 바로 단잠! 게다가 비까지 부슬거리니 게으름의 최적 조건! 이런 날 대중탕의 목욕은 내 최고의 힐링. 목욕 가방 챙겨 들고 나간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세 번은 동생들과 여행을 약속

했기에 멀리는 못가도 그냥 명동 L백화점 본점 13층에서 만나 아주 맛난 곱창전골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된 프랑스 사람 파티시에의 빵집을 찾아가 커피와 빵을 맛보고 막내와 조카딸 뭉도 사고, 남대문 시장에 조카손자 옷을 사러 간다기에 내려주고 집으로 왔다.

둘째 희경이 대신 조카딸이 빈자리를 채웠다. 막내와 조카딸은 지하철 파지만 내가 운전을 하니 거침없이 여기저기 함께 다닐 수 있어 좋았다.

비가 내리니 빵은 민감해서 누룽지 같은 촉감의 바게트는 습기를 먹어 눅졌지만 집에서 잠시 구우면 다시 그 아삭대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노곤해진다. 눈이 시고, 피곤한 느낌이다. 이런 게 나이 들어가는 징조인가? 사실 나는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가도 기가 빨리진 않는

데... 글썄, 기가 빨린다기보다 어서 집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워 애정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다.

요즘의 여행 프로들이 박미선, 송은이와 함께 다니던 2005년의 '행복한 수다'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때도 우린 대본 없이 다녔었다. 대본은 물론 있었지만 한 번 쓰으 보고 우리 마음속의 얘기들을 했다. 그 나라 면적, 인구, 종교, 자연, 언어... 이런 얘기는 사실 쓸데없다. 공기 중의 냄새와 시장 거리를 걸으면 금세 알 수 있으니까. 시청률은 엄청 높진 않았지만 마니아들이 생겨났고, 여자 세 사람의 여행이 술한 프로그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린 스폰서(협찬)도 없었고 기능성 옷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설프었지만, 그간의 지독한 고생들이 송은이, 박미선, 양희은의 유대를 튼튼하게 해주었다.

육아에 지친 조카딸과 둘이 1박 2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6년 만에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 알차게 시간표 짜서 3박 4일 정도로 꾸려보자고 시간 욕심을 낸다.



노래 DNA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내가 중학생이 되고 난 후쯤으로 기억한다. 명절이 되면 우리 식구들은 친척들과 노래방엘 꼭 갔다. 그 자리에서 단연코 최고의 스타는 우리 아버지였다. 핏대를 세우며 열창하는 모습, 넘치는 흥, 터져나갈 것 같은 노래방 스피커. 그리곤 이내 울려 퍼지는 팡파레와 100점이라는 노래방 점수. 아버지의 노래자랑은 비단 노래방뿐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8, 90년대 관광버스 안에선 그야말로 관광버스 춤이 난무했었다. 그렇게 야유회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도 울 아버지는 쉬이 마이크를 넘기지 않으셨다. 마이크를 잡고 주변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나의 눈엔 정말 위대해 보였다.

유치원 때야 집에서 재롱을 부렸지만 학창 시절 축제나 수학여행 무대에서 노래나 춤을 춘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나는 엄마를 닮아서라고 생각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노래방에 갈 때도, 이런저런 모임 자리에서 아빠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으실 때도 엄마는 노래를 권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손사래를 치거나 아예 그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때 ‘울 엄마는 노래를 안

좋아하는구나', '수줍음이 많으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작년 이맘때였다. 당시 중3이었던 첫째 아들이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자 학교 축제 때 무대에 올라서 독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적잖이 놀랐다. 평소에도 욕실에서 샤워하며 이런저런 노래를 읊부짚는 아들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아빠인 나도 못 해본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라니. 할아버지의 손주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수학여행을 다녀온 그날 도착하자마자 혼자 코인노래방엘 갔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은 준비할 시간이 짧아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기타 치며 노래 부른 국어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혼코노'라도 가서 아쉬움을 풀고 와야 했나 보다. 그런 모습은 또 영락없는 내 아들이다.

며칠 전 대전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성당에서 하는 성가대 모임이 전국 단위의 성가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응원을 와줄 수 있냐고 말이다. 그렇다. 올 엄마는 성가대 단원으로 활동 중이시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내가 어렸을 적 노래 마이크를 거절하던 엄마는 노래가 싫었던 게 아니었을 것이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불편한 자리가 있으셨겠지.

결국 올 아버지 엄마 모두 노래를 좋아하신다. 그런 둘 사이의 장남인 나는 오죽하겠나. 그 피가 또 내 첫째 아들에게도 이어진다. 가창 능력의 문제는 가수가 아닌 이상 상관없다. 음정이 불안해도 고음이 올라가지 않아도 노래를 듣고 부르길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써 내려왔다. 그래서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공개 방송'에서 김일중은 노래를 불렀나요?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쉬운 퇴직연금? IBK 연금Easy!

쉬운 노후준비? IBK 연금Easy!

쉬운 투자관리? IBK 연금Easy!

고민도, 할 일도 많은 직장인을 위해
IBK 연금Easy가 함께합니다.
국책은행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믿을 수 있는 연금관리부터
나를 위한 연금진단, 투자성향 분석, 포트폴리오 추천까지
Easy한 연금 시대,
IBK기업은행이 시작합니다.



연금 | 자산건강도, 예상연금액, 예상연금액, 포트폴리오
탐구 | 고객분류를 통한 사전진단

추천 |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상시·경기 포트폴리오 관리로 변동성 최소화

RA 활용한 퇴직연금 | 고객 성향, 시장 상황에 맞춘
일일형 서비스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추천 관리 서비스

직장인을 잘 아는 기업은행의 연금관리 플랫폼, 연금Easy! i-ONE Bank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RA: 로보어드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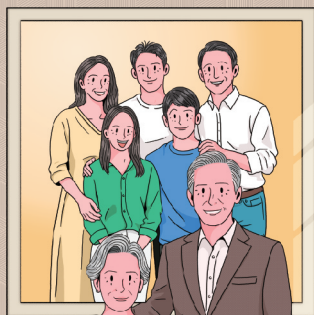
준법감시인 신의필 제2024-63579(2024.10.29) 유효기간 2025.10.28 ※ 자세한 문서는 거래명단표 또는 고객센터 1566-256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지보보험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책임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환과는 별도로 12월 5일(월)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사실 보호상품 합산) 보호입니다. ※ 과세기간 및 과세항목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좌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예상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중보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당당하게, 상속은 단단하게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관리, 상속은 물론
기부와 사회 환원까지

당신의 뜻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055호(2025.05.19.~2026.05.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339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2.)

* 자세한 문은 가계상담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상품설명서 및 안내문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시장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기간을 체결한 후에도 만일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 서비스의 기본계약보수선率は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후채)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



IBK 기업은행